

2020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 임팩트 보고서

하이원과 함께 꿈씨앗을 심었습니 다

2020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 임팩트 보고서

하이원과함께 꿈씨앗을 심었습니다

강원랜드의 "2020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은 강원도 폐광지역의 대학생과 청소년을 연결하는 따뜻한 멘토링 활동입니다. 하이원 멘토링에 참여하는 대학생/청소년들은 다정한 애칭을 갖고 있습니다. 대학생은 하이샘(hi:SAM), 청소년은 하이디(hi:D)라고 불립니다. 강원도 정선, 태백, 영월, 삼척 출신 110명 하이샘이 같은 지역 293명의 하이디를 만났습니다. 멘토링을 통해 학습 및 정서 지원을 나누며 함께 성장했던 6개월, 서로 꿈의 울타리를 만든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TABLE OF CONTENTS

part 1

꿈의 울타리

WE GROW TOGETHER	06
하이원 멘토링 장학을 소개합니다	10
2020 하이원 멘토링 장학 히스토리	12
2020 하이원 멘토링이 만든 임팩트	14

part 2

짜깁 인터뷰 하이쌤, 하이드와 연결되다

장소민 하이쌤 + 박다솜&권보현 하이드	22
이정민 하이쌤 + 김탁연&김가연 하이드	24
박소영 하이쌤 + 강민재&박종복 하이드	26
박진성 하이쌤 + 구자문&이중호 하이드	28
안연정 하이쌤 + 김은지 하이드	30

part 3

차곡차곡 쑥쑥, 우리들의 성장 이야기

20.09 두근두근 첫 만남, 그리고 천천히 그리는 내일	34
20.10 우리들의 중간 점검	36
20.11 일상을 바꾸는 빛나는 사건들	38
20.12 안녕 2020! 따뜻한 인사	40
21.01 새로운 마음과 힘찬 시작	42
21.02 내게 남은 나이테의 모양	44

part 4

하이샘 인터뷰
나는 []이 되고 싶다

정선 / 전예원 하이샘	48
정선 / 박지원 하이샘	49
태백 / 이바울 하이샘	50
태백 / 권미소 하이샘	51
영월 / 신진영 하이샘	52
영월 / 맹예은 하이샘	53
삼척 / 김사라 하이샘	54
삼척 / 박민성 하이샘	55

part 5

하이샘&하이드의
특별한 시간

하이원 장학캠프	58
미래학교	60
꿈키움 페스티벌	62
사회인 멘토링	64
수료식	66
활동 우수자 국내 탐방	68
활동 우수자 인터뷰	70
ENDING LETTER	74

PART 1.

꿈의 울타리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은 지역(고향), 사람, 연결이라는 따뜻한 키워드를 갖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나고 자란 우리가 멘토(대학생)와 멘티(청소년)로 만났습니다. 정선·태백·영월·삼척, 같은 지역
출신의 선후배라 더 단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장하는 꿈의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WE GROW TOGETHER	06
하이원 멘토링 장학을 소개합니다	10
2020 하이원 멘토링 장학 히스토리	12
2020 하이원 멘토링이 만든 임팩트	14



사람들에게 고향은 많은 이야기를 간직한 곳입니다.
우리들의 고향 강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나고 자란 이곳에서
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때가 언제일까 싶은데 훌쩍 자라 대학생이 되었네요.
고향 후배들의 멘토링을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김효린 하이샘



장소민 하이샘



박지원 하이샘



전유나 하이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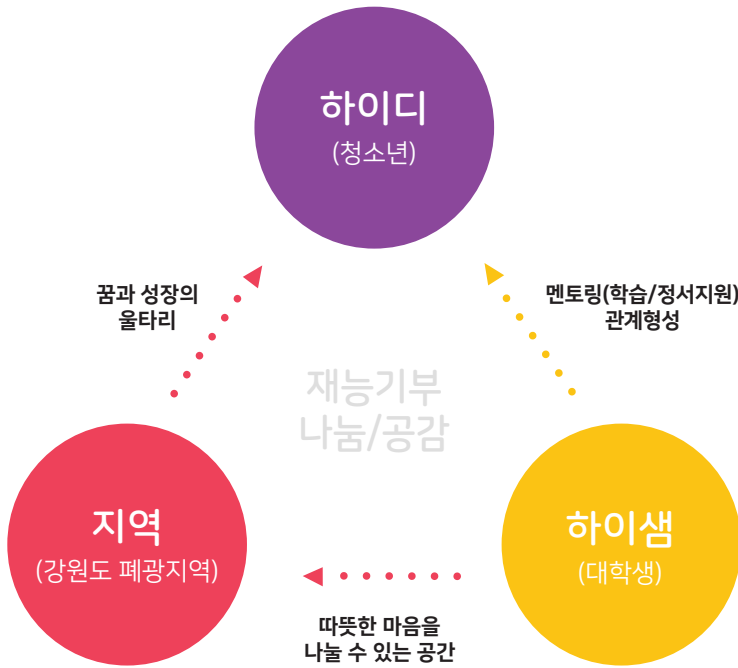


하이샘/하이디라는 이름으로 나눔의 선순환을 그렸습니다.
정선과 태백, 영월과 삼척에서 하이샘과 하이디가 연결됐습니다.
하이원 멘토링을 통해 꿈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멘토와 멘티로 만난 6개월의 시간.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성장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역과 사람,
하이원 멘토링으로 연결되다



「2020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은 (주)강원랜드의 교육장학분야 대표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강원도 폐광지역 출신 대학생(하이샘)과 해당 지역 청소년(하이디)이 교육 나눔의 선순환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대학 장학생은 6개월 동안 청소년 장학생에게 학습 및 정서 지원을 위한 멘토링을 진행합니다. 청소년들은 교육 장학금과 멘토링을 받으며 학업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따뜻한 성장의 시간을 약속한 하이원 멘토링의 세 꼭지점은 하이샘, 하이디, 지역입니다. 하이샘과 하이디의 공통점인 '지역'이라는 특수성 안에서 더 특별하고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의 든든한

hi : SAM 하이샘

하이샘은 하이원 멘토링 장학의 대학생 멘토입니다. 정선·태백·영월·삼척 출신의 대학생들로 지역 후배들을 위한 교육 나눔을 실천합니다. 온라인 줌(Zoom)을 통해 매주 4시간 이상, 6개월 동안 학습 지도를 하고 진로 및 일상 고민을 나누며 유대 관계를 형성합니다. 지역이라는 울타리가 있어 더 끈끈한 사이로 발전 하는 것 같아요. 멘토링 활동 후에는 사무국으로 멘토링 활동 및 성장일지를 보내고 내밀한 이야기를 공유해요. 온라인으로 진행한 멘토링 활동, 코로나19 상황도 하이샘의 열정을 막지 못했어요~!

내일이 기대되는 멘티

hi : D 하이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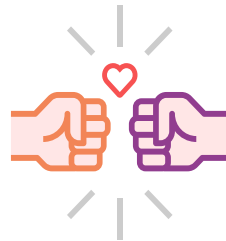
하이디는 하이원 멘토링 장학의 청소년 멘티입니다. 정선·태백·영월·삼척의 중/고등학생으로, 강원도 지역의 미래 인재로 자라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청소년입니다. 든든한 지역 선배 하이샘과 꾸준한 교류를 통해 자신의 꿈을 찾고 함께 키워 나갑니다. 교과 학습 멘토링 및 다양한 하이원 장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꿈을 실현할 방법을 스스로 찾아갑니다.

참여 인원

하이샘 총 110명
하이디 총 293명



멘토링 총시간



8,111 시간
하이샘 멘토링
누적시간

11,131 시간
청소년 멘토링
누적시간

지역에서 함께 성장한 6개월의 시간

2020 하이원 멘토링 히스토리

2020년 5월, 하이원 장학생이 되어 장학생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21년 2월, 6개월간의 멘토링 활동을 마치고 한 뼘 더 자란 모습으로 작별했습니다.

2020.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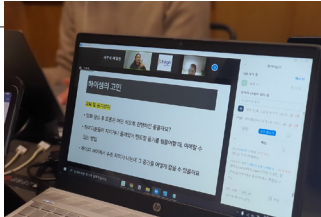


• 2020 하이원 장학캠프

장학생들의 활동 시작을 알리며, 장학증서 전달, 멘토 교육,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이섬들은 온라인 줌(Zoom)을 통한 효과적인 교수법, 하이디와의 소통법 등을 배웠습니다.

2020. 10



• 1차 보수교육 / 미래교육(디자인씽킹 워크숍)

멘토링을 진행하며 어려웠던 점과 현실적인 해소법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래교육(디자인씽킹 워크숍)으로 더 나은 지역사회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202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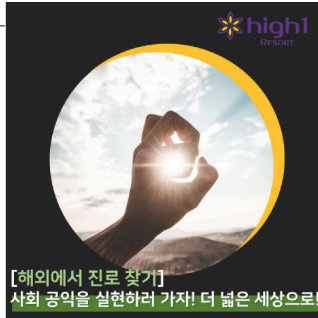
• 온라인 진로박람회(꿈키움 페스티벌)

“우물 안의 하이디, 우리 같이 우물 밖으로 나가보자!”

강원 폐광지역 청소년들에게 대학 학과 및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규모 온라인 진로 박람회 '꿈키움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하이섬들이 서포터즈로 활동하며 대학 학과에 대한 안내와 이벤트 부스 등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2020. 12



• **사회인 멘토링**

하이디에게 든든한 하이샘이 있듯이, 하이샘에게는 사회인 멘토단이 있습니다. 사회인 멘토링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 사회인 멘토님을 만나 직업/직무에 대한 현실적 조언을 들을 수 있었고, 커리어 설계 및 개발을 위한 노하우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2021. 02



• **2020 하이원 장학생 수료식**

2020 하이원 멘토링 장학 활동을 수료하였습니다. 6개월간의 활동을 회고하니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하이디와 함께 했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021. 03



• **우수 활동자 국내탐방**

누구보다 성실하게 하이원 멘토링 활동에 임해준 우수 하이샘들은 3박 4일 동안 '제주'를 여행하는 새로운 제주'란 주제로 추억을 만들고 돌아왔습니다.

멘토와 멘티, 참여자 성장 조사결과

2020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 임팩트

6개월간의 멘토링 활동을 마치며

장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이쌤과 하이디가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성장했는지 세심하게 살펴봤습니다.

소개하는 데이터를 통해 '2020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의 의미를 돌아봅니다.



더할 나위 없었다, YES!

2020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에 참여한 하이디와 하이쌤 모두 높은 만족도를 표현했습니다.

참여 하이디 만족도는 83.9%, 추천 의향은 90.2%를 기록했습니다.

참여 하이쌤의 만족도는 94.7%, 추천 의향은 87.2%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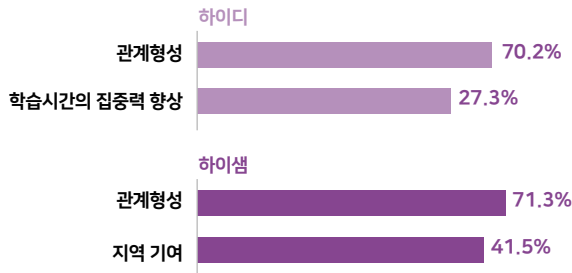
성적은 쑥쑥 오르고 자신감은 팍 찬 활동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은 하이디의 자신감을 높이고 공부 습관을 개선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2020년 1학기 전 과목 성적 평균 61.1점, 2020년 2학기 전 과목 성적 평균 67.3점으로 평균 6.2점이 올랐습니다. 하이쌤과의 멘토링을 통해 자신감(6.8%)이 생기고, 성적 향상(6.8%)을 경험하고, 공부 습관(3.9%)이 생겼다고 하네요! 특히 중하위권 학생들의 성적 향상이 두드러졌고, 상위권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도 직접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하이디는 관계형성(70.2%)과 더불어 학습시간의 집중력 향상(27.3%)을 멘토링의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하이쌤 역시 관계형성(71.3%)을 통해 유대감을 쌓고, 지역 기여(41.5%)를 할 수 있어 멘토링 활동이 보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은
하이쌤들이 자신이 공부하고 자란 고향에 관심을 갖도록 돕고,
하이디들이 공부 자신감을 높이고 공부 습관을 길러
성적 향상에 이르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쏟을 예정입니다.

하이디가 생각하는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

POINT 1

하이디는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 덕분에
[성적 향상]을 이뤘다

하이디 성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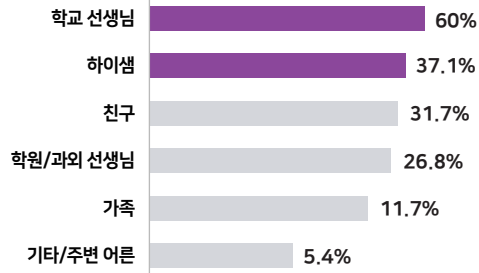
전 과목 성적 평균 * 6.2점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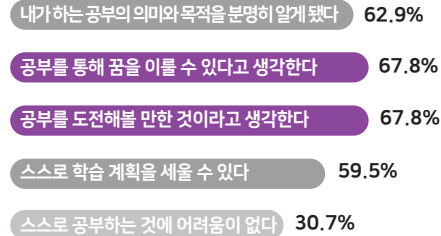
하이샘과 공부한 과목 성적 평균 * 4.6점 향상



하이디 공부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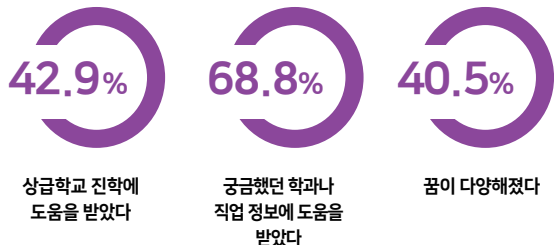
하이원 멘토링 장학 사업에 참여한 하이디는



POINT 2

하이디는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에 참여하며
[진로와 미래 설계]에
도움을 받았다

하이샘과 공부한 뒤 하이디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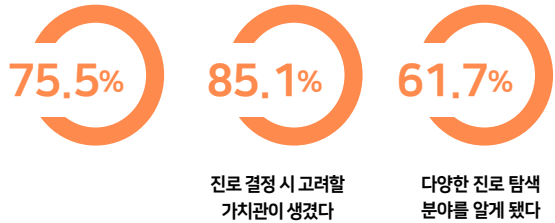


하이샘이 생각하는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

POINT 1

하이샘은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 덕분에
[진로를 확장하고
미래 설계에 도움]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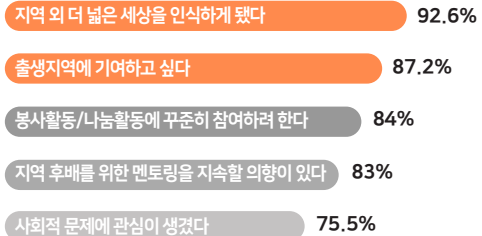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에 참여한 하이샘은



POINT 2

하이샘은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에
참여하며 [세상]에
관심이 커졌다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 덕분에



POINT 3

하이샘은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에 애정과 기부 의지]가
강해졌다

나에게 조건 없이 5,000원이 주어진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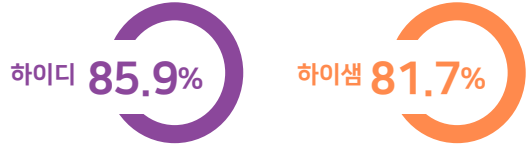
- 아동복지시설에 1,599원 → **1,736원**을 기부할 것이다
- 1:1 결연 청소년에 2,257원 → **2,574원**을 기부할 것이다
- 교육 돌봄기관 설립을 위해 1,260원 → **1,686원**을 기부할 것이다

※ 사전조사(20년 9월)→사후조사(21년 3월) 결과 비교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을 말하다

POINT 1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에
참여하며 [자부심]이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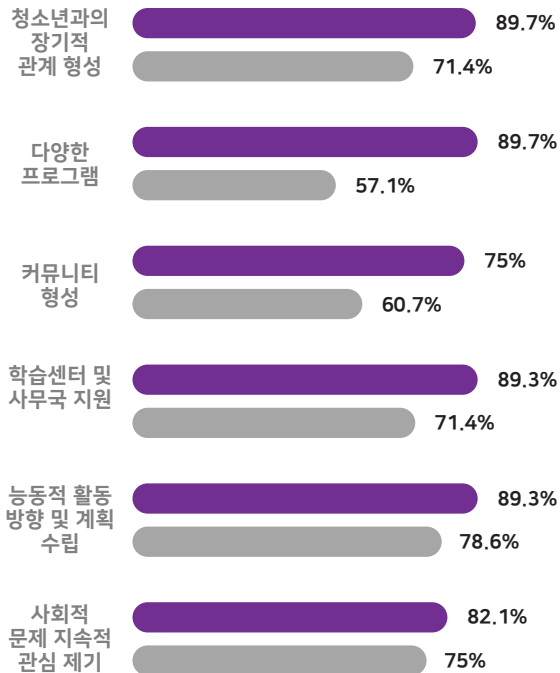
POINT 2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은
[차별화]된다

하이디, 하이샘이 느낀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은?

타 교육봉사 프로그램 대비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에 대한 비교 평가

-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 평가
- 타 교육봉사 프로그램 평가



POINT 3

멘토링의 가장 큰 장점은
[관계 형성]이다

지역 선후배간 멘토링을 하며 가장 좋았던 부분은?

하이디

관계형성 > 학습지도 > 공감능력 > 지역기여 > 지역이해
70.2% > 27.3%

하이샘

관계형성 > 지역기여 > 공감능력 > 지역이해 > 학습지도
71.3% > 41.5%

POINT 4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 덕분에
[강원랜드]를 잘 알게 됐다

하이디 83.9%

가장 많은 하이디가
"강원랜드가 지역 청소년 성장에
관심 있음을 알게 됐다"고
답했다

하이샘 94.7%

가장 많은 하이샘이
"강원랜드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답했다

POINT 5

주변 친구에게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을
[강력 추천]하고 싶다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을 추천하고 싶은가요?

하이디 90.2%

하이샘 87.2%



PART 2.

짜꿍 인터뷰

하이쌤, 하이디와 연결되다

멋진 팀워크로 주 4시간, 총 6개월의 멘토링을 완주한 하이쌤과 하이디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환상의 짜꿍! 타이틀을 붙여주고 싶었어요. 다양한 교육 자료로 알찬 멘토링을 진행한 팀, 가장 많은 시간 멘토링을 진행한 팀. 탁구 선수 출신 하이쌤은 핸드볼 선수 하이디를 만났고, 간호학과 하이쌤은 간호사를 꿈꾸는 하이디와 한 팀이 되었습니다. 지역의 짜꿍들이 만든 소중한 알찬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장소민 하이샘 + 박다솜&권보현 하이디	22
이정민 하이샘 + 김탁연&김가연 하이디	24
박소영 하이샘 + 강민재&박종복 하이디	26
박진성 하이샘 + 구자문&이중호 하이디	28
안연정 하이샘 + 김은지 하이디	30

이보다 즐겁게 공부한 팀은 없다! 다양한 자료로 매주 흥미롭고 알찬 멘토링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장소민 하이쌤 + 박다솜&권보현 하이디

처음 만났을 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멘토링 참석하기'를 서로 약속했고, 이 약속을 지켜줬어요.



2019 하이원 장학 우수 장학생 인터뷰를 수도 없이 보면서 '나도 꼭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우수장학생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꿈을 이뤘네요! 저희 팀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정말 깊어요. 하이디와 처음 만났을 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멘토링 참석하기'를 서로 약속했고, 하이디들은 이 약속을 지켜줬어요. 의욕이 활활 타오르는 두 하이디 덕분에 어색하지 않게 멘토링을 진행하고 빨리 친해질 수 있었어요. 평소에 '질문은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야.', '원래 틀리면서 배우는 거야.'라고 말해줬고, 하이디 질문 덕분에 더 열심히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꼭꼭 눌러 쓴 손 편지로 큰 감동을 안겨준 하이디들! 우리는 서로에게 성장의 원동력이야. 선물 같은 너희 덕분에 나도 자랄 수 있었어.

- 장소민 하이쌤

장소민 하이쌤이 꼽은 가장 인상 깊은 수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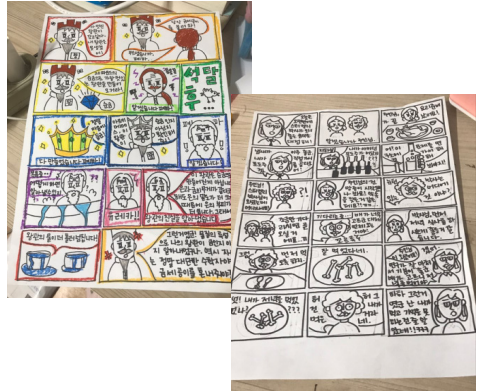
과학은 실험하며 직접 체험해야 흥미를 느끼고 즐거운 과목인데, 온라인으로 수업하기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하이디에게 투명한 컵과 종이, 펜을 준비하라고 했고, 글씨를 반대로 쓴 다음 카메라에 대면 글씨가 똑바로 보이는 '빛의 굴절을 이용한 마술'을 해봤어요. 하이디가 정말 즐겁게 참여해줘서 기억에 남아요.



우리는 서로의 꽃잎이에요.

과학 공부 시간에 하이샘이 아רכิเม데스의 밀도 측정 이야기를 해주고, 직접 과학 만화를 그려보라고 하셨어요. 말로만 들을 땐 이해가 잘 안 갔는데 직접 그리며 복습하니 완벽하게 공부한 느낌이었어요! 가장 싫어하고 못해서 멘토링 때도 영어는 절대 공부하기 싫었는데, 하이샘이 재미있게 배워보자고 해서 영어를 배우게 됐어요. 꾸준히 연습하니 실력이 늘어 뿌듯했어요. 제게 2020 하이원 멘토링 장학생 활동은 조금 어려운,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꾸준히 할 자신도 없고 흥미도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이 도전에 발을 내딛지 않았다면, 새로운 경험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꽃잎이에요. 꽃잎이 모이면 훨씬 더 예뻐지니까. 우리는 혼자 있어도 빛나지만 같이 있으면 훨씬 더 빛나는 꽃잎 같아요.

- 박다솜 하이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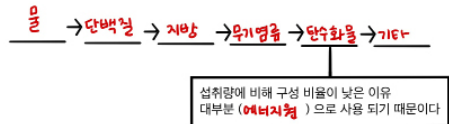


뜻깊고 가치 있는 멘토링 활동을 오래 기억할 거예요.

베프인 다솜과 함께 멘토링에 참여해 하이샘을 만나 행복했어요. 부족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실수도 웃어 넘기며 저희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제가 직접 선생님이 되어 수업을 진행했는데, 하이샘과 다솜이가 학생이 되어 제 수업을 듣는 게 신기하고 즐거웠어요. 누군가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부담감 덕분에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고, 덕분에 과학 성적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새해를 맞이해 편지를 써서 교환했는데, 이때 하이샘의 진심을 알 수 있었어요. 우리는 친연니 친동생 같은 사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가족처럼 고민이나 생각을 편안히 말할 수 있었거든요. 하이원 멘토링 장학생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예요. 뜻깊고, 가치 있고, 재미있는 활동이라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거예요.

- 권보현 하이디

1. 우리 몸의 구성 물질 비율



2. 3대 영양소 공통점: 에너지원으로 사용, 물을 구성한다.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구조			
기본 단위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글리세린
구성 원소	C·H·O	C·H·O·N	C·H·O
에너지원	(O) : 주원 에너지원	(O)	(O)
열량	→ 1g 당 4 kcal	→ 1g 당 4 kcal	→ 1g 당 9 kcal
몸의 구성	(O) → 남은분은 지방산, 당류, 알코올	(O) : 주원 구성 → 근육, 뼈, 피부, 혈액, 호르몬	(O) → 피하지방 : 체온유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당류 O 포도당, 과당 이당류 OO 젖당, 설탕 다당류 OOOOOO 녹말, 글리코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장기 에 충분히 섭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많이 섭취 시 비만 원인

탁구 선수였던 하이샘과 핸드볼 선수인 하이디의 만남. '운동'이라는 교집합을 바탕으로 차곡차곡 관계를 쌓아 올렸습니다.

이정민 하이샘 + 김탁연&김가연 하이디



우리 팀에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텐션'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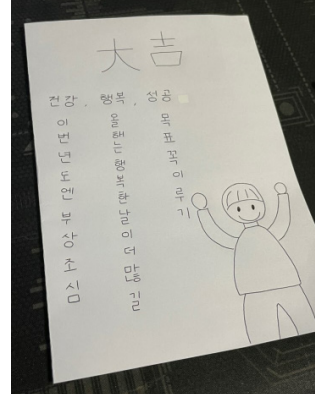
하이디들과 함께 수업하다 보면 웃음소리가 이어폰을 뚫고 나와요. 그만큼 수업 분위기도 좋고 학습 시너지도 대단하죠. 수업에 대한 부담감이 컸지만, 하이디들의 긍정적인 에너지 덕분에 자연스레 해결됐어요. 저희는 '운동'이라는 교집합이 있어 공감대 형성이 쉬웠어요. 저도 어렸을 때 탁구를 했기에 운동선수가 얼마만큼의 노력과 수고를 들여야 하는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이디들의 컨디션을 우선 고려해서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했어요. 운동 끝나고 무척 힘들었을 텐데도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준 점이 가장 고마워요. 탁연&가연 하이디! 너희의 티키타카 덕에 정말 많이 웃었어. 항상 모두가 100% 이상의 결과를 함께 만들어 줘서 고마워. 삼척에서 핸드볼 경기하면 꼭 응원하러 갈게, 꼭!

- 이정민 하이샘



우리 팀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종합비타민'이다! 서로 정말 다른 모습으로 에너지와 활기가 넘쳐서 말 그대로 비타민A, 비타민B, 비타민C 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모두 모이면 정말 건강해질 거예요. 물론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웃음). 우리가 모두 모이면 정말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죠!



🍌 ~~~~~
우리만 아는 힘듦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서 마음이 편했어요.

저는 프로 핸드볼 선수를 꿈꾸는 고등학교 핸드볼 선수입니다. 우리 팀은 운동, 휴식, 영화를 좋아해요. 특히 휴식에 있어서는 모두가 진지한 것 같아요! 일본어를 배우고 싶었는데, 하이드가 되어 그 기회를 얻었어요. 혼자라면 하지 못했을 텐데 하이원 멘토링을 통해 함께 공부하는 재미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공감'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어요. 운동을 마치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말하지 않아도 하이샘이 알아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우리만 아는 그 '힘듦'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어서 마음이 편했어요. 무언가를 공부하는 것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2020 하이원 멘토링 장학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 것을 찾아서 즐거웠어요.

- 김탁연 하이디

🍌 ~~~~~
피곤해서 계획한 일을 해내지 못했는데, 내가 해야 할 무언가를 해내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저 또한 핸드볼 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고등학교 핸드볼 선수입니다. 우리 팀은 모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업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일본어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함께 배우다 보니 흥미가 생겼어요. 일본어 빙고를 하면 제가 항상 이겼고, 함께 배운 일본어 노래가 중독성이 강해서 내내 따라 부르며 외웠던 기억이 나요. 수업 시간이 맞지 않거나 운동이 늦게 끝나서 지칠 땐 힘들었지만, 하이샘이 배려해 주셔서 집중할 수 있었어요. 저희의 힘든 점을 먼저 알아 주셔서 정말 든든했어요. '먹는 것'을 좋아하는 공통점도 있는데, <고독한 미식가>라는 드라마도 보고,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누며 서로 취향을 알 수 있었어요. 항상 운동이 끝나면 피곤해서 계획한 일을 해내지 못했는데, 하이원 멘토링을 통해 내가 해야 할 무언가를 해내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 김가연 하이디

간호학과에 다니는 하이샘과 간호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하이드가 만나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자랐습니다.

박소영 하이샘 + 강민재&박종복 하이드



앞으로 현장에서 동료로 다시 만날 우리들,
그때를 상상하면?

강민재 하이드: 학생과 선생님 신분이 아닌 같은 목표를 가진 직업인으로 만난다면, 부담감도 크지만 안정감도 클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서로 열심히 응원해요!

박종복 하이드: 반가우면서도 뿌듯한, 의미 있는 만남일 거예요. 제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것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간호사의 길을, 또 굳이 간호사가 아니더라도 멋진 역량을 활용해 소영샘의 길을 개척하면 좋겠어요.



너희도 앞으로 멋진 하이샘으로 성장하겠지? 나보다 더 좋은 하이샘이 될 거야!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하이샘과 간호학과 진학을 꿈꾸는 하이드가 만난 팀이에요. 덕분에 자소서를 쓰거나 면접을 준비할 때, 서로 많은 도움이 됐죠. 함께 멘토링을 한 민재&종복 하이드 모두 고등학교 후배이고 보건동아리를 함께 해서 어색하지는 않았어요. 종복 하이드가 서울대 간호학과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합격한 것처럼 행복했어요. 둘 다 원하는 학교에 합격해 기뻐고, 같이 꿈꿔온 목표를 도달했다는 사실이 행복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조력자'였어요. 도움을 주고 받았고, 하이드 덕분에 제가 다시금 깨달은 것도 무수히 많아요. 2020 하이원 멘토링 장학은 제게 또 다른 꿈을 가질 기회를 줬어요. 간호사만이 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멘토링 활동을 하며 가르치는 일에 흥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전공과 접목해 더 구체적인 꿈을 키워나갈 수 있었어요. 종복&민재야! 너희도 앞으로 멋진 하이샘으로 성장하겠지? 나보다 더 좋은 하이샘이 될 거라고 확신해! 앞으로 열심히 꿈을 향해 달려 나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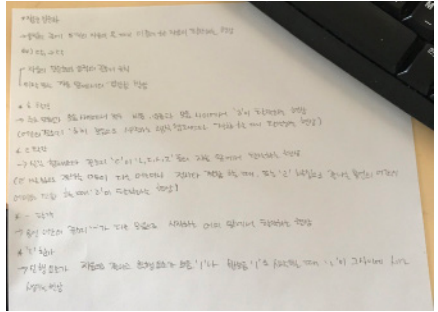
- 박소영 하이샘



2020 하이원 멘토링 장학활동이 없었다면, 소중한 인연도 소중한 시간도 다 챙길 수 없었을 거예요.

삼척에 살며 어려운 사람을 돕는 간호사를 꿈꾸며, 올해 간호학과에 진학했어요. 같은 전공을 먼저 공부한 하이샘이 시간 관리나 학과 공부에 대해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자세히 알려주셔서 진짜 캠퍼스에서 상담 받는 것 같았어요. 처음 멘토링 할 땐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아 긴장을 많이 했는데, 하이샘이 밝게 웃으며 흥미로운 이야기로 흥미를 유발해 주며 웃으며 수업을 들었어요. 자신감이 제일 없던 수학을 공부하며, 하이샘이 차근차근 알려주셔서 평생 못 풀 거라 생각했던 문제가 하나씩 풀릴 때 정말 뿌듯하고 감사했어요! 2020 하이원 멘토링 장학활동이 없었다면, 소중한 인연도 소중한 시간도 다 챙길 수 없었을 거예요. 누구보다 값진 한 해를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앞으로의 나를 성장하게 하는 발판이 되어 줬거든요!

- 강민재 하이디



힘들 땐 서로 희망적인 대화를 나누며 그 감정을 극복하려 노력했어요.

학교에서 하이원 멘토링 장학활동에 대한 안내를 받았고, 단순히 장학금만 받는 시스템이 아니라 멘토링을 한다는 점이 새롭게 느껴져 신청했어요. 하이샘과 고등학교 생활이나 대학입시 등 학업적인 도움, 인간관계 등 생활 속 도움도 얻는 시간을 보냈어요. 자소서를 쓰던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모두 힘들었는데 완성하니 그동안 쌓인 긴장이 한순간에 풀렸어요. 하이샘이 잘 될 거 같다고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함도 많이 느꼈고요. 멘토링이 힘들 땐 서로 희망적인 대화를 나누며 그 감정을 극복하려 노력했어요. 지금까지 해온 노력에 근거해 “우리는 함께 이만큼의 노력을 해왔으니 어떤 일이 있어도 잘 이겨낼 거야.”와 같은 말이 고단한 상황을 버티도록 도와줬어요. 2020 하이원 멘토링 장학활동은 고3 생활 전반의 SOS와 같았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에 알맞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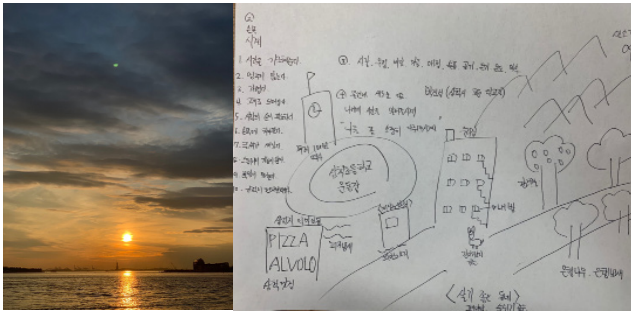
- 박종복 하이디

가장 긴 시간 멘토링을 진행한 팀이자 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팀입니다. 적극적이고 꾸준한 관계 유지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박진성 하이샘 + 구자문&이중호 하이디



우리는 2020 하이원 멘토링 장학활동의 어벤져스입니다!



2017년도에 하이원 장학금을 지원 받은 적 있어요. 군대 전역 후 코로나19로 일상의 즐거움을 잃어가던 때, 인터넷으로 하이원 멘토링 장학 신청 소식을 알았죠. 2020년에는 멘토링을 진행한다는 사실에 기대를 품고 지원했어요. 대략 200시간 정도 멘토링을 진행했어요. 하이디에게 풍부한 지식을 전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수업을 잘 들어주어 고단함이 풀렸어요. 우리는 의사소통이 잘 되는 팀이에요. 2020 하이원 멘토링 장학활동의 어벤져스였다고 생각해요! 성격은 다르지만, 자신만의 강점을 확실히 가졌고, 그것을 서로 전파했기 때문이죠. 6개월의 여정은 막을 내리지만,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고 생각해요. 제게 기적과도 같은 순간을 선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많은 폐광지역 학생들이 혜택을 누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노력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나의 보물인 자문과 중호, 정말 고마워!

- 박진성 하이샘





혼자라면 열심히 하지 못했을 텐데, 두 사람 덕에 더욱 열심히 할 수 있었죠.

우리는 선생님과 제자 사이가 아니라 동네 형이 동생들을 가르쳐주는 친근한 멘토링을 진행했어요. 온라인으로 멘토링을 진행하다가 마지막 시간에 하이샘과 중호 하이디를 만났는데요. 떡볶이를 먹으면서 편한 분위기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멘토링 하며 귀찮고 힘들어도, 하이샘 그리고 함께하는 중호 하이디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했어요.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디자인 씽킹 프로젝트를 하며, 하이샘과 중호 하이디와 함께 '동네 지도 그리기'와 '마인드맵 그리기'를 한 적 있어요. 혼자라면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했을 텐데, 두 사람 덕에 더욱 열심히 할 수 있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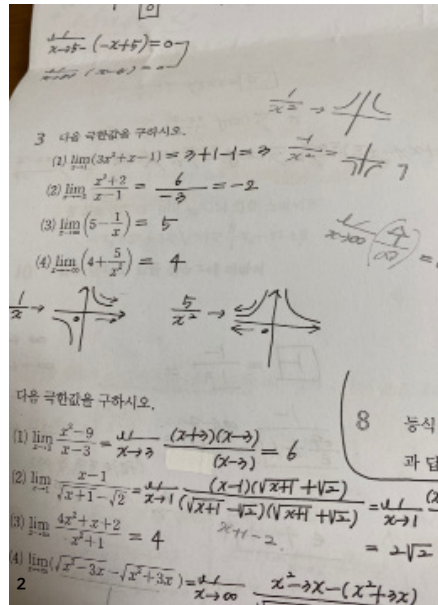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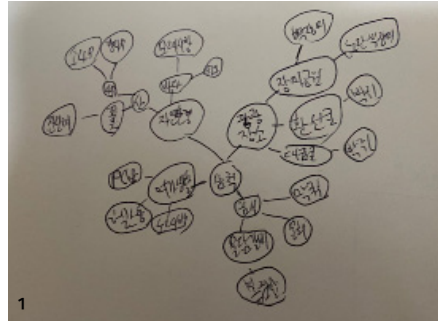
- **귀환 하이디**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정말 뿌듯해요.

코로나19로 의미 없는 1년을 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이원 멘토링 장학으로 인해 태어나 처음 장학금도 받고 멘토링 활동도 했어요. 처음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일 덕분에 제게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났죠. 지루한 과목 수업보다는 다양한 수업을 많이 한 것이 우리 팀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서로 소통이 잘되는 것도요. 마지막 멘토링 시간에 하이샘과 자문 하이디와 함께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직접 밥 먹고 보고서를 작성한 때가 기억에 남아요. 다른 사람 앞에서 글을 써본 건 처음인데, 진성 하이샘께서 직접 글을 다듬어 주고, 고칠 점을 많이 알려줬어요. 저는 대학교 정보를 자주 찾아보는 편이에요. 전에는 막무가내로 정보를 막 찾았는데, 멘토링을 통해 하이샘이 유용한 정보를 잘 알려주신 것이 큰 도움이 됐어요. 이제는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정말 뿌듯해요. 그리고 꿈키움 페스티벌 같은 행사가 좀 더 많이 열리면 좋겠어요. 대학 생활 현실을 선배들께 직접 듣고 알게 되어서,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 **이중호 하이디**



우리는 서로 []대! 빈칸을 채우고 싶은 말은?

- 박진성 하이샘: 우리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 구자문 하이디: 우리는 서로 [**인생 친구**]이다.
- 이중호 하이디: 우리는 서로 [**툼니바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험생 시절을 서로 다독이며 지나왔습니다. 팀의 이야기는 하이샘 우수 사례로 여러 차례 언급됐고, 앞으로도 오래 기억될 거예요!

안연정 하이샘 + 김은지 하이디



고3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한 하이디에게 전하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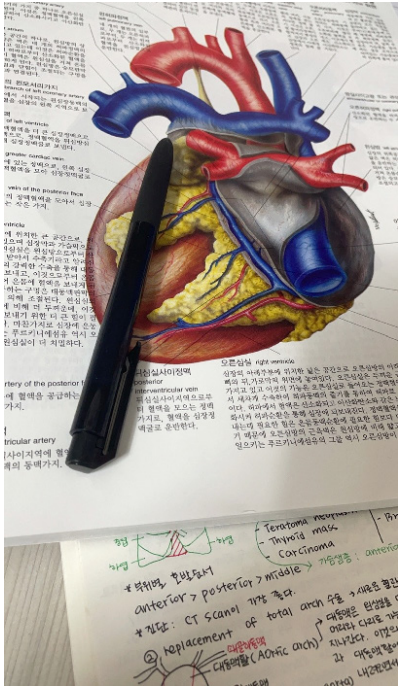
하이디들을 보면서 저의 고3 생활이 떠올라 수업 시간에 종종 제 이야기를 해주곤 했는데, 하이디 친구들이 생각보다 성숙하고 자신이 꿈꾸는 진로와 뚜렷한 목표가 있어서 대단하다고 느껴요. 각자 분야에서 멋있게 성장하는 어른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꿈꾸던 지금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원하는 것에 도전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어요. 나의 첫 멘티 은지&다은 하이디! "The sky is the limit!" 이 문장 아직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능력은 끝이 없다는 뜻이야. 이 말을 항상 생각하며 나아가자. 멘토링은 끝났지만, 너희 곁에 응원의 힘을 항상 불어넣어 주는 언정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



제게 2020 하이원 멘토링 장학활동은 '롤러코스터'예요.

한 번뿐인 대학 생활을 좀 더 활기차고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고, 같은 지역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2020 하이원 멘토링 장학활동에 지원했어요. 우리 팀은 세 명 모두 성격이 비슷해요. 처음에는 낯을 가려 순간순간 정적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며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고 하고 싶은 일에 열정이 많다는 공통점을 발견했죠. 매주 멘토링을 무사히 마쳤을 때 뿌듯함을 느꼈어요. 한 주 계획을 모두 달성하기는 쉽지 않은데, 멘토링은 항상 '완료' 표시를 할 수 있었어요. 디자인씽킹 워크숍에 참여해 열심히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교육 듣는 하이디를 보면서 저절로 엄마 미소를 짓던 때도 생각나요. 제게 2020 하이원 멘토링 장학활동은 '롤러코스터'예요. 타기 전 긴장과 떨림, 짧은 시간이지만 타면서 즐기는 내 모습, 다시 출발 지점으로 돌아올 때의 아쉬움. 이 모든 감정을 6개월 동안 하이샘으로 지내면서 생생하게 느꼈어요.

- 안연정 하이샘



“ 다시 돌아간다면, 다양한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요.

대학교 진학 상담을 하던 중, 담임 선생님께서 하이원 멘토링 장학활동을 추천해 주셨어요. 자기소개서를 쓴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처음이라 모르는 게 많았지만, 내에 대한 소개글을 준비하는 일이 신기하고 즐거웠어요. 하이섬과 계획했던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했을 때도 기억나요. 틀린 문제를 거듭 풀어보니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필기시험을 보러 갔을 때 멘토링을 통해 배운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어요. 우리 팀은 서로 다른 분야의 정보를 많이 아는 개인이 모여서 정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몰랐던 분야라 처음 알게 된 것에 관심이 저절로 갔고, 덕분에 2020 하이원 멘토링이 유익했어요! 다시 고3으로 돌아간다면 하이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요. 이제 대학생이 되어 '하이디' 역할은 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좋은 멘토나 하이섬들을 더 만나보고 싶어요.

김지 하이디

원어린이 많이 사용하는 30가지 표현!

2021. 01. 19. 18:00

원어린이 많이 사용하는 30가지 표현!

2021 하이원 멘토링 장학활동 우수 멘토링 하이디 수여식

신, 그중에서 핵심을 보고 우리의 소중한 순간과 앞으로의 자신을 소개해보고!

다음 하이디

초나

1학년은 늘 알려주어주는 것들이고 그 이후엔 사생활이 생기기 때문에 중간고사와 중간고사 후부터야 관련이 더 많아진 것 같고 중간고사 이후엔 조금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은지 하이디

가운두리

기본은 기본에 충실하는 것인데 조금 더는 웃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까 웃는 용이었는데 본인도 즐겁게 웃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조금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중간고사 이후엔 조금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PART 3.

차곡차곡 쑥쑥, 우리들의 성장 이야기

하이원 멘토링 장학활동에 참여하는 하이쌤과 하이디는 매달 자신의 성장을 기록합니다. 멘토링 활동을 하며 느낀 점, 매달 나의 성장 지점을 살피는 과정입니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우리들의 성장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하이쌤과 하이디의 성장 나이트를 찬찬히 살펴 봐 주세요.

20.09 두근두근 첫 만남, 그리고 천천히 그리는 내일	34
20.10 우리들의 중간 점검	36
20.11 일상을 바꾼 빛나는 사건들	38
20.12 안녕 2020! 따뜻한 인사	40
21.01 새로운 마음과 힘찬 시작	42
21.02 내게 남은 나이테의 모양	44

2020. 09

두근두근 첫 만남, 그리고 천천히 그리는 내일

하이디들이 사회로 나가기 전에 책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자기 의견을 더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었다. 또, 같은 지역 선배로서 먼저 경험했던 일을 재미있게 알려주고 싶었다. 성적을 올리기 위한 국어 내신 수업 대신, 하이디에게 필요한 것을 고민하고 그에 맞게 커리큘럼을 만들었다. '스스로 생각하도록 질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멘토링의 목표다. 처음엔 낯을 가리던 하이디들이 조금씩 자유롭게 마이크를 켜고 내 말에 대답해준다.

-김도이 하이쌤



소외되지 않는 멘토링을 하고 싶다. 한 번에 적극적으로 변화하지 않아도 하이원 멘토링을 통해 조금 더 성장하는 변화를 겪었으면 좋겠다. <톱 소녀의 모험>이라는 책을 같이 읽고 '가장 큰 용기를 냈을 때는 언제었나요?' 같은 토론 질문도 준비하는 나를 마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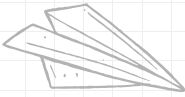
-정예린 하이쌤

같은 고등학교, 기숙사 얘기를 이어나가고 매 수업마다 과제 아닌 과제로 멘토에게 궁금한 점, 멘티에게 궁금한 점 한 가지씩 생각해오기로 했다. 그 질문에 답변하고, 꼬리를 무는 질문들로 원만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었다.

-장진표 하이쌤

하이쌤과 멘토링을 통해서 많은 팁을 얻어도 막상 직접 해보지 않으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직접 해봐야 경험이 되고 도움이 된다. 그래서 멘토링을 하지 않는 날에는 하이쌤에게 배운 것을 이용해서 나만의 공부법을 만들고 그 팁이 나에게 도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권나연 하이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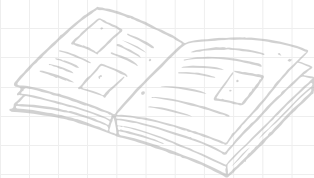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대학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한다. 진학 그리고 대학 생활을 주제로 하이쌤과 친한 형처럼 편하게 대화하다 보니 기대감이 생긴다. 아는 사람도 없고 처음 가보는 곳에서 혼자 생활할 생각이 무서웠지만, 하이쌤과 대화하며 생각이 바뀌었다. 오늘 대학 원서를 넣었다. 떨렸는데, 같이 알아봐 주고 도와줘서 많은 도움이 됐다. 벌써부터 멘토링이 끝나면 좀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신강민 하이디

하이디로 참여하며 다이어리와 스터디 플레너를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됐다. 친절한 하이쌤과 일주일엔 한 번씩 멘토링 하며 할 일, 있었던 일, 좋아하는 문장, 좋아하고 힘이 되는 노래 가사 등을 다이어리에 적는다. 이제는 계획도 잘 지키고 즐겁고 꾸준하게 다이어리를 쓰게 됐다. 꾸준히 할 수 있는 끈기가 생겼다는 점에서 나의 성장을 느낀다.

-노기쁨 하이디



2020. 10 우리들의 중간 점검

중간고사를 마치고, 자신의 실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고등학교 때 실제로 사 용해 도움 된 '오답봉투 공부법'을 하이드에게 알려줬다.



-김미지 하이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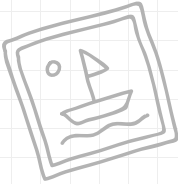


10월은 너무나도 바쁜 한 달이었다. 중간고사와 각종 과제에 실습까지, 솔직히 멘토링을 중도에 포기할까 고민하기도 했다. 귀한 시간을 내어 멘토링에 참여하는 하이드들에게 양질의 수업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이 마음을 괴롭혔다. 그러다 하이쌤 OT때 들은 '중도 포기는 아니다'라는 말을 떠올리고 다시 힘을 내어 수업을 준비했다. 영어 사이트에 들어가 게임도 찾고, 다른 사람들이 만든 PPT 교육자료도 보며 오히려 평소보다 더 다양한 자료를 만날 수 있었다. 의도치 않게 건문이 넓어지는 순간이었다. 멘토링을 그만둘까 고민했던 10월이 다 지나갔을 때, 묘한 감정이 들었다. 결국 해냈다는 성취감과 잘 버텨준 나에게 고마운 마음이 퐁퐁 솟아올랐다. 10월의 성장이다. 일단 한발씩 내딛다 보면 모든 것은 지나가고 결국 끝에 다다를 수 있다는.

-지혜설 하이쌤

먼저 다가가는 성격이 아니라 멘토링 초반에는 수업에만 집중했다. 학업적으로 꼭 도와줘야 한다는 사명감에 수업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준비하는 나도 지치고, 수업을 따라오는 하이디도 학교 공부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여 힘든 것 같았다. 재미 요소를 더해 수업을 진행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쌓이다 보니 이제는 전보다 많이 편안해져서 먼저 하이디에게 일상을 묻곤 한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놀고 싶을 텐데 저녁에 함께 수업하는 모습이 기특하다. 진로심리검사로 하이디의 꿈이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사실도 알게 됐고, 이야기를 나누며 어떻게 도와주면 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송예지 하이쌤



10월의 나는 이전의 나보다 실행력이 더 강해졌다. 지금껏 '하고 싶다'고 생각만 했던 일을 시작해보게 됐다. 출판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는데, 일단 뭐라도 시작해보자는 마음으로 계속 글을 썼다. 그리고 한 잡지사에서 진행하는 출판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일단 해보고 싶다고 매번 상상만 하던 일에 첫발을 디뎠다. 결과가 어떻게 나에게 글은 남고, 그것으로 언제든 또 다시 시도하면 된다는 생각이 든다.

-김남영 하이쌤

10월은 자신감이 성장한 달이다. 평소에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어색하고, 부끄럽다는 이유로 발표도 피했다. 하지만 이래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친구들과 UCC 공모전에 도전했다. 친구들과 호흡을 맞추다 보니 스스로 성장하고 세상에 한걸음 나아간 느낌이 들었다. 영상 편집을 해본 적 없었지만, 하나씩 배워가며 영상을 완성했을 때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더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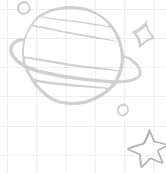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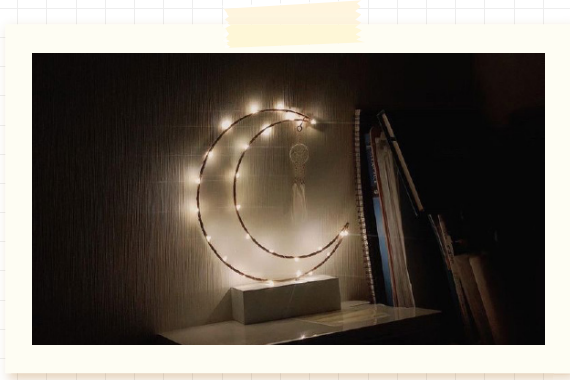
-이예원 하이디

10월부터 매주 주말마다 서울로 학원을 다닌다. 실기와 면접일이 임박해서 학원에서 주로 글을 쓰고 합평하거나 면접 준비를 했다. 집과 서울을 오가는 과정에서 장학금을 교통비로 많이 사용했다. 기차나 버스, 지하철에서 보내는 시간에 책을 읽기 위해 노력했다. 25일에는 한 대학에서 첫 실기를 봤다. 날은 점점 쌀쌀해지고 청소년으로서의 시간도 점점 저물어가지만 하이원 장학 덕분에 큰 걱정 없이, 꽤 뜻깊은 가을을 지나 겨울로 들어선다. 학교에서는 꾸준히 수능 준비를 하고 있다. 반 친구들의 수다가 조금 줄었지만, 나름대로 각자 열심히 지금의 시간을 잘 나가고 있는 것 같다.

-박단비 하이디

2020. 11

일상을 바꾼 빛나는 사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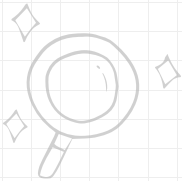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다. 부족한 파트는 다시 해보려 노력했고, 모의고사를 풀어오는 숙제를 내줬고, 푸는 요령과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줬다.

-강지현 하이쌤

디자인씽킹 워크숍에 함께 참여하면서 공감하고 이해하며 생각하는 방법을 달리 할 수 있었다. 혼자서 참여할 땐 솔직히 지루한 부분이 있었는데 하이디와 함께하니깐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었다. 직접 설명하고 타인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수업방식을 적용해서 하이디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한별 하이쌤



꿈키움 페스티벌에 하이디와 함께 참여했다. 평소 경험하지 못한 진로체험, 학과체험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새롭고 흥미로운 시간을 보냈다. 도시 지역 청소년에 비해 진로탐색 활동이 제한적이고, 정보 습득이 어려운 하이디들이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탐색하는 시간을 가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엄한솔 하이쌤

꿈키움 페스티벌을 준비하느라 바빴다. 내 전공을 하이드에게 소개하려니 막막하기도 했다. 자부심과 애정이 있지만, 학생들 사이에서 비인기학과라는 사실에 착잡한 마음도 들었다. 그러나 이번 기회로 내 진로에 대한 확신을 다질 수 있었다.

-김민희 하이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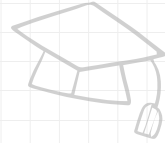
생산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교과 공부를 하지 않기로 했던 하이드가 이제는 공부하고 싶어 한다. 공부하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자 왠지 힘이 났다.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겠다.

-심지후 하이쌤

멘토쌤 꿈은 뭐냐고 물어보는 멘티들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했을 때, 경청하던 아이들의 푹푹푹뚱한 눈빛을 잊을 수 없다. 멘토링이 끝날 무렵에 '만약 멘토링 끝나면 어떨 것 같아?'라고 물어봤는데 두 멘티 모두 '아쉬울 것 같아요.'라 대답해 고맙기도, 뿌듯하기도 했다. 남은 시간 더 최선을 다해 멘토링을 진행하겠다고 다짐한 날이었다.

-유나경 하이쌤

처음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했다. 의자를 사고, 연극에 필요한 가발도 사며 3학년 선배들의 졸업식을 준비한다. 학교가 크지 않지만, 생애 단 한 번뿐인 졸업식을 축하하고 싶어 열심히 연습 중이다.



-현석주 하이드

하이쌤과 멘토링을 진행한 지 3개월이 되어간다. 성장 기록을 작성하며 지난 시간을 돌아켜보니, 새롭게 시작되고 바뀐 부분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멘토링 전에는 스스로 공부하려는 의지도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문제가 되어 얼마 가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멘토링을 하면서 하이쌤과 함께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해보니 집중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었다.

-하나한 하이드



2020. 12

안녕 2020! 따뜻한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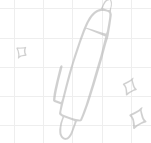
하이드에게 용기 내어 연락했다! 입시 기간이 한창이라 먼저 연락하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이다. 결과가 상당히 좋았다. 한 하이드는 목표였던 학교의 최저 점수를 맞춘 거 같다고 했다. 다른 하이드 둘도 합격 소식을 전했다. 다행이다. 하이드들에게 수고했다는 장문의 편지를 한 통 씩 보냈다.

-기쁜경태 하이쌤



자신의 실패 경험과 이 경험을 통해 느낀 점을 생각해보는 과제를 냈다. 이를 바탕으로 멘토링 시간에는 '잘 실패하는 법'을 주제로, 실패에 대한 객관적 정의와 실패를 겪고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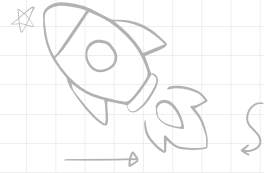
-기쁜희지 하이쌤



줌(Zoom) 주석 기능을 하이드가 직접 사용하며 본인이 선생님이 된 것처럼 설명하며 흥미를 되찾고 즐겁게 수업하도록 했다. 오늘 배운 내용과 연관된 응용문제도 함께 풀고, 이해가 잘 가지 않았던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복습했다.

-장소민 하이쌤

하이디와 고민과 걱정거리를 나눴다. 대학 입학 전까지 무엇을 하면 좋을지 모르는 하이디에게 하면 좋은 것을 소개했다. 대학생이 되었을 때 필요한 꿀팁, 예를 들면 기숙사, 수강신청, 시험공부, 과제 하는 방법 등 실질적으로 하이디에게 도움 될 것을 알려줬다.



-주민호 하이쌤

직접 갈 순 없지만, 국립현대미술관 온라인 전시를 감상하는 '온택트 미술관 투어' 시간을 가졌다. 친구들이 관심 있는 분야로 <큐레이터 전시해설>을 각자 보기로 했다.



-이은서 하이쌤

크리스마스 주간이라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영화인 <나홀로 집에>를 함께 봤다. 회화 수업도 이어 나갔다. 하이디들은 기대 이상으로 전에 배웠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적절하게 잘 사용했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역할극을 하는데, 중간중간 읽기 어려운 표현을 도와주면 더 쉽게 역할극에 몰입한다. 요즘은 새로운 활동을 이것저것 고민한다. 생각해 놓은 방법은 다양한데 실제로 해보면 어떨지 감이 잘 오지 않는다. 준비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정민 하이쌤

새해를 맞이하기 직전의 마지막 멘토링이라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계획을 세웠다. 2020년에 아쉬웠던 점, 2021년에 꼭 이루고 싶은 10가지 위시리스트를 작성하고 공유했다. 하이디들의 개인적인 일상을 살펴보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여의진 하이쌤

12월엔 기말고사, 근로 등 많은 일이 있어 정량을 지키지 못해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나의 성장은 '진심 어린 응원을 하는 방법'이다. 하이디 모두 지난 시절의 나 같다. 자신에게 단호하며 작은 일에도 스스로 칭찬할 줄 모른다. 잘 알지 못하면 시도하지 않고, 못한다고 쉽게 단정 짓는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알았다. 주변에서 잘하고 있다고, 처음부터 잘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반복해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틀려도 괜찮다는 말을 해주는 것, 진심 어린 응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멘토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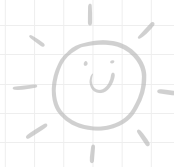


-김수민 하이쌤

2021.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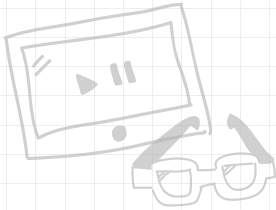
새로운 마음과 힘찬 시작

2021년 첫 멘토링이다! 지난주에 만나지 못해 새해 첫 주를 어떻게 보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2021년을 새겨보는 시간을 가졌다. 어떤 띠의 해인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아보고 재미로 신년운세도 알아봤다. 내가 잘하는 것, 2021년에 발전시킬 수 있는 것도 함께 찾아봤다.



권미소 하이쌤

미션카드 중 '하이드와 영화 보기', '하이드 멘토링 어워즈' 활동을 진행했다. 하이드와 함께 보고 싶은 영화를 골랐고,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를 보고 감상평을 공유하기로 했다. 하이드 멘토링 어워즈를 진행하기에 앞서, 지금까지의 멘토링 중에서 하이드가 가장 자신 있게 혹은 잘한 활동을 골라 상장을 만들었다. 상장을 만드니 정말 선생님이 된 것 같았다!



안연정 하이쌤

새해를 맞아 한 살 더 먹은 만큼 마음가짐을 조금 더 성숙히 하자고 다짐했는데 지키지 못하고 역시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느꼈다. 하이드와의 관계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도 무산된 적 많았다. 어려움이 있을 때, 타인과의 대화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는데 최근에 동갑내기 하이쌤과 친해지게 됐다. 수업하는 방식, 대화법, 멘토링에 대한 고민을 한참 동안 나누면서 나를 다시 바라보고 조금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을 수는 없다. 이런 저런 사람이 만나 서로 이해하고 유화되어 어울리는 것이 진정한 관계라고 생각한다. 이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김사라 하이쌤

이번 달 멘토링을 들으면서 왜 영어를 배워야 하는지 많이 생각했다.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와서 '진짜 성장했구나, 이렇게 노력하면 되는구나!' 느낀다.

김혜빈 하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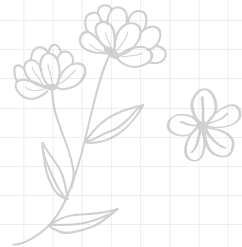


1월의 나는 원하는 대학교에 떨어져 좌절도 많이 하고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 앞으로의 생활이 막막하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게 무너진 기분이 들어서 우울했다. 하지만 이 우울함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앞으로 간호학과에 진학하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구입하고 지식을 쌓겠다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 투자했다. 내가 나를 좋아해 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좋아해 줄까.

-강민새 하이디

인터넷에 흥미로운 기사를 봤다. 2년 전 쯤의 기사였다. 칠레 북쪽의 아타카마 사막은 세계의 어느 사막보다도 강수량이 적어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으로 선정한 곳이다. 그곳에 2017년 8월, 전례 없는 폭우가 쏟아지며 꽃이 피어났다. 수백만 가지 아름다운 꽃을 피워 낼 잠재력을 품은 땅이지만, 이상기후 수준의 폭우가 오지 않는 한 매마른 사막으로만 존재해야 하는 아타카마 사막이 더욱 애틋하게 느껴졌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게 아닐까. 보통의 삶을 사는 우리들도 언젠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꽃피울 수 있지 않을까.

-김효린 하이샘



2021. 02

내게 남은 나이테의 모양

하이원 멘토링 장학생으로 받은 장학금으로 강의를 듣고 공부해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다. 공부와 멘토링을 병행하면서 힘든 일도 있었지만, 좋은 기억들이 더 많이 남았다. 학창 시절 소홀히 한 과목을 하이드 친구들과 함께 수업하면서 다시 배우고, 성장한다는 느낌이 든다.

-김미란 하이쌤



2월은 감회가 새로운 달이다. 삼척지역 우수 멘토로 뽑혀 서울에 가서 촬영할 기회가 생겼다. 하이드에게 보낼 영상 편지를 찍으면서 '헤림아, 예빈아!'를 외치자마자 눈물이 났다. 아이들과 이제 진짜 작별한다고 생각하니 어떤 식으로 이별해야 할지 모르겠다. 때론 아이들이 나보다 더 어른스럽다고 느꼈다. 아이들의 깊은 생각과 에너지로 나 또한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느낌을 받는다. 하이드를 위로하며, 이제는 힘든 시절을 보낸 어린 나에게 질책 아닌 위로를 해주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민희 하이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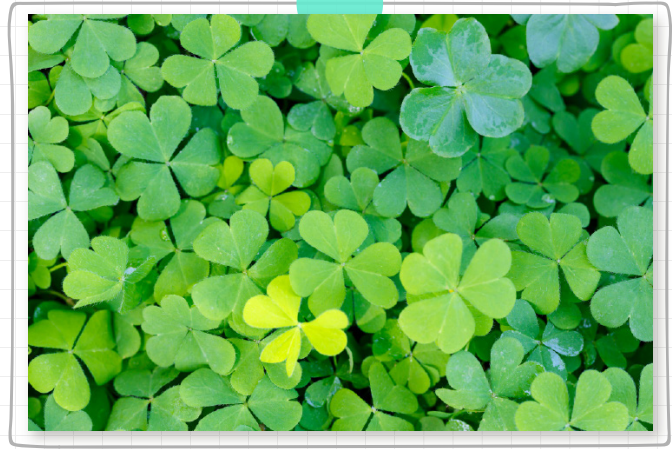
마지막 멘토링을 마치면서 하이드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게 굉장히 무릎하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초반에 지각을 많이 하고, 시간도 자주 바꾸던 송이는 다른 사정으로 빠지는 일을 하지 않게 되었고, 사정을 솔직히 말하는 법을 배웠다. 고훈이는 마지막 한 달간 멘토링을 진행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꿈을 위해서 용기 있게 학교를 옮기고 최우선으로 실행해내는 모습을 보여줬다. 나 또한 3학년이 되면서 이제는 정말 어른으로 성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책임질 일도, 스스로 해내야 할 일도 많아졌지. 예전에는 이런 점이 두려워 회피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준비된 것 같다. 하이원 멘토링 장학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이 이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됐다.



-맹예은 하이쌤

2월에는 1월에 시작한 회계 공부를 이어나갔다. 매일 집이나 도서관에서 인터넷 강의를 4~5개씩 듣고 복습하는 것을 반복했다. 아직 해야 하는 공부가 정말 많지만, 지금처럼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종종 하이원 장학금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게 된다. 인터넷 강의, 강의를 듣는 아이패드, 공부하고 있는 교재 모두 장학금으로 구입했기 때문이다. 장학금이 없었더라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습비를 마련해야 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하이원 장학금이 도움이 된 만큼, 멘티들에게도 멘토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멘토링에 임했다.

-박세현 하이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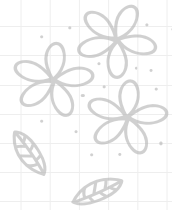


'성장'이라는 단어를 품고 지나온 날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예상보다 많이 성장한 시간이었다. 매주 멘토링을 준비하며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사람을 만나고 대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멘토링을 통해 대인 관계는 차차 쌓아 나가면 된다는 것을 배웠다. 남들과 비슷하게, 튀지 않게 지내온 내가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했다. 하이원 멘토링을 통해 다각도로 생각하고 실행하는 추진력이 생겼다. 변화가 생기려면 나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깨달음도 얻었다. 아이들과 대면으로 멘토링을 진행할 수 없었던 환경이 원망스럽다. 멘토링이 끝난 뒤에도 하이드와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고 싶다.

-한은선 하이원

마지막으로 쓰는 성장 기록인 만큼, 나를 돌아보고 더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특히 하이원과 함께한 6개월 동안, 힘들면 바로 포기하는 대신 조금이라도 버티고, 좌절할 때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도전 정신을 배웠다. 그리고 미래와 꿈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됐고, 무엇을 하고 싶고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 관심을 갖게 됐다. 내가 하이원을 통해 조금씩 조금씩 성장했던 것처럼, 능력을 쌓아서 나로 인해 누군가가 더 성장해 나가도록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

-김소중 하이드



오랫동안 줌(Zoom)으로 만나면서 정이 많이 들었는데, 마지막 멘토링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만나 진행했다. 인생 얘기도 듣고, 좋았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도 나눴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만나 여러 가지를 해보고 싶다.

-구자문 하이드

PART 4.

하이샘 인터뷰

나는 []이 되고 싶다

'하이샘'은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에 참여한 대학생 멘토를 부르는 다정한 별칭입니다. 하이샘이 꿈을 키우며 자란 지역에서, 하이샘이 졸업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을 만나 함께 공부하고 일상을 나눴습니다. 정선, 태백, 영월, 삼척에서 멘토 활동을 마친 하이샘에게 "나는 []이 되고 싶다"의 [괄호]를 채워달라고 했습니다. 하이샘 내면의 성장 이야기가 담긴 []의 따뜻함을 확인하세요.

정선 / 전예원 하이섬	48
정선 / 박지원 하이섬	49
태백 / 이바울 하이섬	50
태백 / 권미소 하이섬	51
영월 / 신진영 하이섬	52
영월 / 맹예은 하이섬	53
삼척 / 김사라 하이섬	54
삼척 / 박민성 하이섬	55



✦ 정선 전예원 하이섬

정선에서 학교를 다니며 역사 교사를 꿈꾸던 전예원 하이섬은 한국역사학과에 진학했지만, 진로고민 끝에 중국어문 복수전공에 도전했다고 해요.

“하이원 멘토링 장학생 선발 이후에 중국어 학원에 다니며 회화 능력을 키우고 있어요. 하이원 멘토링 장학은 제가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준 ‘발판’이에요.”

Q. 하이원 멘토링 장학에 어떤 마음으로 지원했나요?

2019년에도 하이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학업 성적 향상 및 자기 계발을 이룬 경험이 있었기에, 장학금이 제 대학 생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또한 강원랜드로부터 학창 시절에 다양한 지원을 받았던 폐광지역 선배로서, 후배에게 나의 경험과 능력을 나누는 멘토링 활동이 뜻 깊은 대학 시절 추억을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Q. 지원부터 선발까지, 기억에 남는 순간은?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선배 언니와 함께 지원했는데요. 서로 모의 면접도 보고 지원서도 검토해주면서 꼭 같이 선발되었으면 좋겠다고 매일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함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캠프에 동행한 순간은 잊지 못할 거예요! 하이섬으로서 많은 것을 공유하고, 어려울 땐 조언을 구하며 활동 내내 동료 하이섬으로 제 옆에 있어서 든든했어요.

Q. 담당하이드와 쌓은 소중한 추억을 소개해 주세요.

제가 졸업한 함백고등학교 재학생 하이드 두 명과 학습 멘토링을 진행했어요. 사실 수학 성적이 가장 좋지 않았던 제게 하이드가 수학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다른 과목을 공부하자고 설득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해서 멘토링 전, 미리 문제를 풀고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최선을 다해 준비했어요. 학창 시절 가장 자신 없던 과목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하이드 성적이 무려 20점 가까이 상승했던 순간이 제게도 큰 의미였어요.

Q. ‘하이섬’이라서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멘토링을 시작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 주자’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6개월의 멘토링을 마무리하며 받은 피드백 중에 ‘전예원 하이섬은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게끔 도와주어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문장이 있었어요. 목표를 이뤘다는 점에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

이었어요! 또, 사무국에서 매주 보내주는 ‘활동보고서 작성 및 공지사항’ 메일을 통해 동료 하이섬들은 어떻게 멘토링 하는지, 이번 주에는 어떤 사회적 멘토링이 진행되는지 등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었어요. 100명이 넘는 하이섬들의 활동보고서를 확인하고 알찬 내용으로 구성된 메일을 보내주셔서 매주 참 든든했어요.

Q. 함께한 하이드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픈 이야기는?

애들아, 너희는 ‘하면 된다!’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아이들 이야. 멘토링 할 때도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2021년에도 시작을 두려워하지 말고 공부와 공부 외의 것에도 도전하며 보람찬 한 해를 보내길 바랄게! 항상 너희를 응원하는 하이섬이 있다는 걸 잊지 마!

나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이섬으로 활동한 매 순간은 도전으로 가득했어요. 사실 멘토링 자체가 제게 도전이었는데요. 처음인 만큼 부족한 점이 많음을 인정하고 학습 멘토링 방식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고, 새로운 방식이 하이드에게 맞지 않으면 다시 보완해서 멘토링을 진행했어요.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만 생각했다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멘토링을 마무리할 수 없었을 거예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마음가짐 그대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 정선 박지원 하이שמ

취미는 남은 재료로 반찬 만들기, 특기는 정선아리랑 경창. 데이터분석에 능한 국제 개발협력전문가, 태권도와 한국어 교육이 가능한 능력을 겸비한 NGO활동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박지원 하이שמ을 만나볼까요?



Q. 하이원 멘토링 장학활동과의 인연을 들려주세요.

2018년 하이원 장학을 신청했었어요. 폐광지역이 많이 낙후 되어있지만, 찾아보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강원랜드의 사회공헌사업이에요. '하이원 멘토링 장학'을 통해 더 큰 사람이 되어 지역에 기여하고 싶었어요. 이런 마음으로 2020년에도 지원했고, 처음으로 온라인 면접을 보던 날 긴장되어 마음 즐기던 기억이 납니다.

Q. 어떤 하이드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는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모교인 정선고등학교 후배들과 함께했는데요, 입시를 준비하는 고3 친구 2명과 입시지원, 진로상담, 자소서 첨삭 및 면접 준비를 함께했어요. 좋은 멘토링을 위해서는 멘토-멘티 간 관계를 쌓는 것이 중요하데요. 고향에 내려갈 때 대면 멘토링을 기획하고 화면을 넘어서 교류와 교감을 하는 시간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Q. 멘토링 하며 가장 인상 깊은 순간은 언제인가요?

멘토가 기획하고 준비하던 것을 넘어서 멘티가 아이디어를 내고 제안했던 경험이 기억에 남아요. 멘티의 생각에서 인사이트를 얻어 백지도 나라 이름 맞추기, 버뮤다 삼각지대 탐구활동 등을 했고, 운전면허 필기 하루 1회씩 풀어 인증하기 등의 약속을 만들어 지킬 수 있었어요. 멘티가 활동의 객체에서 주체로 넘어가는 아주 의미 있는 순간이었어요.

Q. '하이שמ'이라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하이드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결전의 날, 하이드에게 응원 문자를 보냈는데 진정성 있는 답장에 감동받았어요. '지금까지 함께 해준 시간 모두 감사합니다.', '내 곁에 나를 항상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고맙습니다.'라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결과에 상관없이 함께한 순간을 통해 서로 고마움과 충만함을 느꼈어요. 하이드가 12년의 학창 시절을 마무리하고 입시 준비하는 과정을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어요. 성인이자 대학생으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을 응원할게요! 기회가 온다면, 베풀어 주세요.

나는 [동기부여하는사람]이 되고 싶다!

군대에 있을 때 후임이 동기부여가 되는 선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있어요. 멘토링 하면서도 멘토로서, 선배로서, 형/오빠로서 동기부여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에게 자극 받고 함께 발전하는 동시에 누군가에게 동기부여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 태백 이바을 하이쌤

강원도 태백에서 뛰놀고 공부하던 이바을 하이쌤은 지금 서울에서 공부하며 꿈을 쫓습니다. 함께한 하이디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해왔어요. “멘토라는 위치에 있었지만 멘티 같은 순간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따라주고 약속을 잘 지켜줘서 고맙was어요. 같이 밥 먹자고 약속했기 때문에, 꼭 다 같이 만나서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이쌤의 하이쌤]이 되고 싶다!

멘토 역시 피드백 해주고 성장하도록 이끌어 줄 멘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활동하며 느꼈어요. 그로 인해 질적으로 더 좋은 멘토링을 제공할 수 있고, 더 큰 걸음으로 계속해서 나아 갈 수 있으니까요.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아서 조언할 수 있고,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Q. 하이원 멘토링 장학활동과 인연이 깊다고 들었어요.

2019년부터 하이원 장학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하이원 장학금 통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는데, 제가 받은 이 도움을 베풀 기회가 없어 아쉬웠어요. 그러던 중 2020년에 '멘토링'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보고 내가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 생겼구나! 하면서 지원했죠. 코로나19로 온라인 면접을 봤는데, 친구랑 같이 면접을 봐서 긴장되는 동시에 서로 웃음을 참던 순간이 기억 나네요.

Q. 하이디 친구들과 어떤 추억을 쌓았는지 소개해 주세요.

태백지역에 사는 모교 후배인 하이디 두 명과 함께했어요. 제가 생각한 멘토링은 일방적인 교습인 과외와 달리, 쌍방향으로 협업하며 대화를 하는 것이예요. 그래서 진로 탐색과 상담, 고등학교에서 추억 만드는 법, 동아리 활동 계획 짜기 등 학업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것을 찾는 활동을 했어요. 태백시청에서 주관하는 지역학교 멘토링에 자주 참여했던 경험 덕분에 하이디를 처음 만났을 때 낯설기 보다는 오히려 친근한 감정이 앞섰어요. 하이디들 또한 제가 선배라는 것을 알게 되자 마음을 열고 편하게 다가와 줬어요.

Q. 멘토링 하며 가장 인상 깊은 순간은 언제였어요?

한 하이디가 저에게 “형은 왜 공부를 했어요?”라는 질문을 했을 때. 공부하는 이유는 생각해보지 않아서 이 질문이 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10분 정도 대답하지 못해서 정적이 찾아왔어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찾지 못했어요. 덕분에 자아 성찰할 기회가 생기고, 저의 성장도 이뤄진 것 같아요. 멘토링을 하면서 학업적인 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런 식의 성장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억에 남아요.

Q. 활동을 마무리하며, 나에게 2020 하이원 멘토링 장학활동은 어떤 의미였나요?

2020 하이원 멘토링 장학활동은 가장 큰 버팀목이었어요. 덕분에 경제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었고, 해보지 못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어요. 인간관계에 치여 힘든 시기에 제 이야기를 들어준 하이디, 하이쌤과 하이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무국을 만나 2020년을 버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 태백 권미소 하이섬

권미소 하이섬은 늘 배려와 웃음을 지닌 멘토링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대학교 4학년을 마치고 졸업을 앞둔 상황에서 만난 하이원 멘토링 장학활동은 선생님을 꿈꾸는 권미소 하이섬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Q. 나에게 2020 하이원 멘토링 장학활동이란?

저에게 2020 하이원 멘토링 장학활동은 '맛보기 영상'과 같아요. 앞으로 교직에서 비대면 수업이 추가 되는 일상을 살아갈 저에게 6개월 동안 하이디들과 수업하고, 관계를 만드는 과정이 맛보기 영상과 같다고 생각해요!

Q. 함께한 하이디 친구들 소개도 부탁해요.

저는 다양한 개성과 특성을 지닌 3명의 중학생 하이디를 만났어요. A 하이디는 늘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며,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에 행복을 느낍니다. B 하이디는 중학교 축구부로 활동하는데요. 2020 키워드를 늘 함께하는 '축구공'으로 삼기도 했어요! C 하이디는 멘토링에서 의젓한 형 역할을 너무나도 잘 수행했어요. 진중하고 진솔한 장점을 가진 친구랍니다.

Q. 멘토링 하며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하이디들이 대화의 흐름을 주도했던 때! 항상 멘토로서 대화나 수업의 흐름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이디들이 먼저 궁금한 것을 물어봐 주고, 대화를 이끌어주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관계가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Q. 함께한 하이디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픈 이야기는?

얘들아!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어. 너희에게 멘토링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너무 궁금해. 그동안 함께해서 즐거웠고, 많이 배웠어!

Q. 2021년에 꼭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현재 초등 임용고시에 합격해서 발령 대기 중인데요. 발령이 나기 전까지 운전면허도 따고, 다양한 알바를 하면서 사회 경험을 많이 쌓아보려 해요.

나는 [**일상에 늘 존재하는 사람**] 이 되고 싶다!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존재가 아닌, 내 주변에 존재하는 사람들 곁에 늘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영월 신진영 하이샘

영월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서울에서 시각디자인을 공부하는 신진영 하이샘은 하이원 멘토링 강학을 통해 강원도를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며 불편한 것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했지만, 하이원의 지원은 ‘강원도 덕분에’ 받을 수 있는 것이었죠. 영월에 살지 않았다더라면 이 좋은 기회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 강원도를 새롭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Q. 하이원 멘토링 장학 지원부터 선발까지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친언니가 늘 하이원 장학을 신청해서 저도 따라 신청했던 게 하이원 멘토링 장학과의 첫 만남이에요. 면접 볼 때, 같이 본 지원자들이 너무 말을 잘해서 긴장됐어요. 너무나 무뎠어서 강아지를 품에 안고 심호흡 했던 기억이 있어요.

Q. 하이드 친구들과 어떤 활동을 함께 했나요?

전공을 살려, 미술 분야로 진학하고자 하는 3명의 하이드들과 함께했어요. 선우와 주희는 디자인에, 사라는 서양화에 관심이 있었죠. 기본적으로는 학습 멘토링을 진행하고, 시험이 끝나거나 아이들이 지쳐 보일 때는 전시도 보고, 입시 설명도 하고, 미술사도 공부하는 미술 멘토링을 했어요. 미술대학과 관련된 정보와 입시, 학원에 대한 조언도 많이 해줬어요. 기말고사가 끝나고 저희 학교 졸업 전시를 함께 봤는데요. 미술, 디자인에는 답이 없기에 어떤 작품이 좋은지, 어떤 부분이 맘에 드는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어요. 그 과정에서 하이드들을 더 많이 이해했고, 취향을 공유할 수 있었어요.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누구보다 목소리가 밝았어요. 저 또한 제가 좋아 하는 것이 원지 깊게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죠.

Q. 함께한 하이드 친구들에게 전하는 인사.

학생 입장에서 일주일에 1시간 20분씩 멘토링 하는 것이 꽤 귀찮기도 하고, 부담도 됐을 텐데 끝까지 잘 따라와 줘서 고맷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미술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하이드들을 만나 저도 에너지를 많이 받았어요. 그 열정과 미술을 좋아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꼭 원하는 과에 가길 바라요!

나는 [꾸준한 사람]이 되고 싶다!

작년에 가장 많이 한 말은 ‘아 아무것도 하기 싫다.’였을 거예요. 알바, 멘토링, 대외활동, 학교 수업, 과제, 친구들과 약속 등으로 정말 바쁜 하루하루를 살면서 지치고 다 놓아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이원 멘토링 장학활동은 알바를 좀 쉬엄쉬엄하도록 도와주고,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지역인재를 키울 기회를 줬어요. 이 경험을 간직하고 누군가를 도우며 열악한 상황을 극복하는 힘을 길러 단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 영월 맹예은 하이섬

심리학과에 다니며 관련된 진로를 꿈꾸는 맹예은 하이섬은 2020 하이원 멘토링 장학활동을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된 존재'라고 표현했어요.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좋은 경험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매우 크답니다!"



Q. 함께한 하이디 친구들을 소개해 주세요.

제가 담당한 하이디는 총 세 명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하이디 2명, 중학교 3학년이 되는 하이디 1명이에요. A 하이디는 네일아티스트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네일아트 연습을 하는 멋진 친구죠. B 하이디는 축구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인 골키퍼를 맡아 열심히 정상을 향해 달려 나가는 친구예요. C 하이디는 예체능 전공을 희망하며 미래를 열심히 그려 나가고 있어요.

Q. 멘토링 하며 잊을 수 없었던 순간은?

첫 만남도 인상 깊었지만, 같이 공부하면서 아이들의 실력이 향상됐을 때. 하이디와 한국사를 공부하는데, 한 챕터가 끝날 때마다 퀴즈를 풀었어요. 그날은 새롭게 문제를 맞출 때마다 1분씩 쉬는 시간을 늘리기로 약속했는데, 하이디가 만점을 받았어요! 정말 기쁘고 놀라웠던 기억이 있어요.

Q. '하이섬'으로 활동하며 다채로운 감정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멘토링 하며 스스로 정말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하이디들이 정말 열심히 따라와 준 것 같아요. 멘토링을 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잘 참여해주는 모습에 너무 감동했고, 항상 기뻐요. 조금 더 칭찬해주고, 잘 해주지 못해서 많이 미안해요! 하이디들에게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길 바라고, 간직한 멋진 꿈을 응원해요.

Q. 2021년에 꿈꾸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제 3학년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하려고 해요! 관심 있는 임상심리학 분야와 관련된 수업에 집중하고, 관련 도서를 읽거나 교수님과 상담하는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에요! 또 코로나19가 사라져서 진로와 관련된 대외 활동이나 실습 등을 할 수 있길 바라요.

나는 [멋진 사람] 이 되고 싶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처럼, 저도 심리학 분야에서 이름을 남기는 멋진 사람이 되고픈 꿈이 있습니다! 하이원 멘토링이 그 발판을 마련해 주었는데, 앞으로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는 다짐을 담았습니다!



◆ 삼척 김사라 하이셈

국어국문학을 전공하는 김사라 하이셈의 새해 계획은 어느 때보다 빠릅니다. 유기건 보호센터에서 봉사활동 하기, 지역 아동센터 교육봉사 하기, 하이원 멘토링 장학생에 다시 도전하기.

“첫 멘토링이라 많이 서툰 제 모습에 아쉬울 때도 많았지만, 그런 점을 탄탄하게 보완해서 하이원 멘토링 장학 하이셈으로 다시 한번 활동하고 싶어요!”

나는 [관찮은 사람] 이 되고 싶다!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대단하다', '잘한다'는 칭찬보다 '그 사람 정말 관찮다'라는 소리를 듣는 바른 인성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관찮은 제 자신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할래요!

Q. 어떤 계기로 하이원 멘토링 장학생에 지원했나요?

친동생이 고등학생 때 하이원 장학생으로 활동해서, 저 또한 안내문을 인상깊게 봤어요. 2020년 공고가 뜨자마자 부리나케 지원했는데, 대학입시 이후 그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목표로 한 건 처음이에요. 결과 나오는 날, 아르바이트하다 합격 문자를 보고 손님 앞에서 껄! 소리 지른 기억이 나요(민망).

Q. 함께한 하이디 친구들을 소개해 주세요!

중학교 2학년인 두 명의 뽀짝이들과 함께 국어수업과 진로 수업을 병행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낯설어서 부끄럼을 많이 났지만, 삼척 이야기로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하이디들이 작은 마을에 살고 있어서 동네 사람들만 아는 공통점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가게 앞에 검은 털 멍멍이 쌤도 봤는데!' 하는 것요.

Q. 멘토링하며 가장 인상 깊은 기억은?

일대일로 대화해도 두시간 내내 '네'라는 대답만 했던 친구가 노력 끝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발표하며 홀로서기에 성공했던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답니다. 여전히 그때를 생각하면 밀려오는 감동에 코끝이 찡해져요. 정말 잘했다고 백 번은 말해준 것 같아요!

Q. 2020 하이원 멘토링 장학활동은 어떤 의미였나요?

저에게 하이원 멘토링 장학활동은 따스한 물결 그 자체였어요. 처음 경험해본 멘토링이라 누군가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 버거웠지만, 결국은 따스한 추억이더라고요. 어린 친구들과 어떻게 하면 틀어지지 않고 좋은 기억을 쌓을까 고민했는데, 이 고민 가운데 늘 사무국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를 다독이며 마음 다잡을 수 있게 늘 응원 해주셨어요.

Q. 함께한 하이디들에게 전하는 말.

쌤은 늘 너희에게 너무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 지치고 넘어질 것 같을 때는 언제나 쌤의 그늘에 와서 쉬라고 말해주고 싶었거든. 쌤은 너희가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 말고, 누군가에게 너무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 너희 그늘에 와서 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건 너희가 정말 잘 살았다는 증거야. 늘 따스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다들 건강하자! 우리 존재 파이팅.

◆ 삼척 박민성 하이섬

은행 인턴으로 근무하며 멘토링을 진행한 박민성 하이섬. 그동안 쌓은 다양한 경험을 하이원 멘토링 장학활동을 통해 하이디들과 공유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Q. 나에게 2020 하이원 멘토링 장학활동은 어떤 의미였나요?
하이원리조트의 사회공헌사업 덕분에 세상을 넓게 볼 수 있었고, 학업도 원활하게 할 수 있었어요. 받았던 만큼 나눌 수 있던 기회였고, 잊지 못할 추억의 시간이었어요.

Q. 하이원 멘토링 장학활동을 통해 만난 하이디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같은 고향인 삼척에 사는 하이디, 태백에 거주하는 하이디 두 명과 함께 멘토링을 진행했어요. 삼척 하이디는 제가 졸업한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해요. 항상 밝고, 공부에 흥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영어를 좋아하고 잘해요. 태백 하이디는 여러 봉사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학습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친구인데요. 함께 수학을 공부했어요.

Q. 멘토링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요? 기억에 남는 수업이 있나요?
'지역 하이디들이 경험하지 못했을 교육'을 하고 싶었어요. 지역 특성상 수도권에 비해 영어 인프라가 부족했기에, 저는 학창 시절 영어원작 영화를 보며 해석하고 공부했거든요. 이러한 방식

으로 영어에 대한 재미를 좀 더 높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 <라이언킹>을 자막 없이 보고 해석하거나 영어 스크립트를 소리 내어 읽으며 해석하는 수업을 했어요. 처음에는 스크립트를 보고 바로 해석하는 속도가 느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영어 대사를 듣고 해석하는 시간이 빨라졌어요. 영어를 즐겁게 배우고 있고, 이런 방식의 공부는 처음이라는 피드백이 인상 깊었어요. 새로운 수업 방식 덕분에 하이디도 저도 수업에 대한 거부감 없이 흥미를 가지며 매 순간에 최대한 임할 수 있었어요.

Q. 함께한 하이디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픈 이야기는?
부족했던 점이 많았던 하이섬이지만, 긴 멘토링 과정을 꾸준히 함께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좋은 인연으로 꾸준히 관계를 유지하면 좋겠어요!

나는 [받은 것보다 많이 베푸는 사람] 이 되고 싶다!

강원도에서 자란 덕분에 강원랜드를 통해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었습니다. 지원을 통해 한 단계씩 꾸준히 성장했듯 지역 친구들에게도 제가 가진 것을 꾸준히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사회인이 되고 싶습니다.



PART 5.

하이쌤&하이드의 특별한 시간

하이원 멘토링 장학 사업은 하이쌤&하이드의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하이쌤 대상으로 멘토링 활동의 비전을 공유하고 진심을 약속하는 #하이원 장학캠프, 공감을 바탕으로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디자인씽킹 워크숍 #미래학교가 열렸습니다. 하이드는 온라인 진로 박람회 #꿈키움 페스티벌을 통해, 하이쌤은 #사회인 멘토링을 통해 꿈을 향해 한발짝 더 나아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6개월 멘토링 활동의 마무리를 알리는 #수료식, 활동 우수 하이쌤과 함께 떠난 #국내탐방까지, 우리들의 특별한 시간을 만납니다.

하이원 장학캠프	58
미래학교	60
꿈키움 페스티벌	62
사회인 멘토링	64
수료식	66
활동 우수자 국내 탐방	68
활동 우수자 인터뷰	70
ENDING LETTER	74

시작하는 하이샘을 위한 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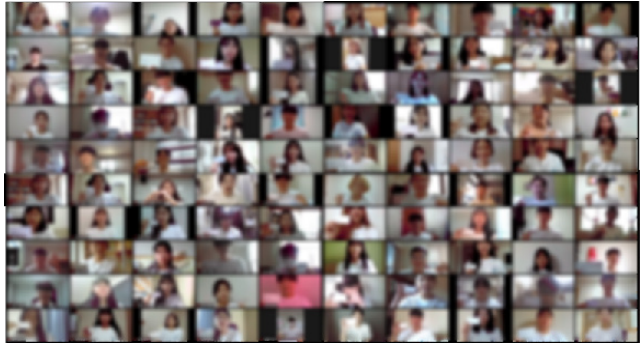
#하이원 장학캠프



“하이샘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학생 멘토인 하이샘이 본격 멘토링을 시작하기 전, 하이샘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배우고 다양한 노하우를 전수받은 <하이원 장학캠프>가 열렸습니다. 6개월간 함께 이루어낼 선순환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열심히 활동할 것을 다짐했던 시간! 강원랜드 관계자분들의 뜨거운 환영, 하이원 장학에 대한 상세한 설명, 청소년과 라포 형성법 특강, 멘토와 멘티의 이해 교육, 성인지 감수성 교육, 온라인 멘토링 노하우 전수까지! 알차고 뜨거웠던 그 현장, 함께 둘러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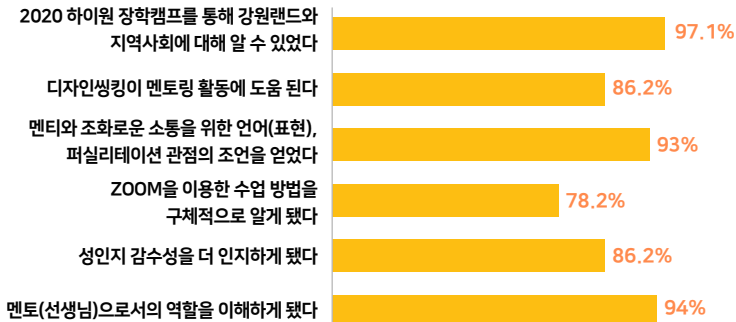


- 1 하이원 장학캠프 온라인 진행을 위해 마련된 현장
- 2 드디어 막이 올랐습니다! 강원랜드 담당자의 안내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 전반을 이해하고, 하이원 멘토링 장학 사무국 배일현 매니저의 안내로 멘토링 과정을 살펴봤어요
- 3 ZOOM을 활용한 효과적인 수업 방법, 청소년과 소통할 때 주의할 부분 등도 자료를 통해 꼼꼼하게 전달 받았어요
- 4 캠프 둘째 날, 현직 선생님이 '멘토와 멘티의 이해'를 주제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 및 소통 꿀팁을 전해주셨습니다



단체 사진으로 마무리, 하이샘 모두 가르치고 배우며 성장하기를 응원할게요!

하이원 장학캠프 참여 후기



첫째 날 진행 시간이 다소 길어서 집중하는 데 조금 어려웠어요. 하지만 강의 내용과 하이샘이 참여하는 활동을 몇 가지 해본 것은 매우 유익하고 좋았어요. 멘티에게 적용할 수 있는 예시 자료를 볼 수 있어서 도움됐어요.

대면이 아닌 점이 가장 아쉬웠어요. 소규모라도 대면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온라인 교육이라 소통이 조금은 불편할 줄 알았는데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굉장히 놀라웠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대학생 멘토들이 앞으로 멘토링을 진행하는 데 도움 되도록 진행해 주신 강연 모두 유익했고, 아쉬운 점 하나없이 즐거웠습니다!

멘토링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장학캠프를 통해 멘티들과 소통하는 방법, 멘토링 방향성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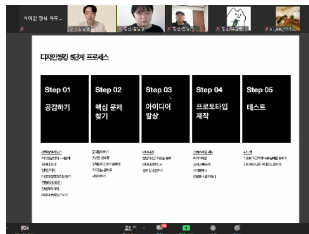
하이샘&하이디의 디자인씽킹 워크숍

#미래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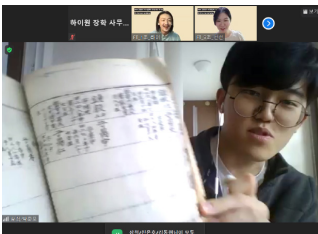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은 하이원 장학생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지원합니다. 디자인씽킹 워크숍(Design Thinking Workshop)은 공감에서 출발하는 문제해결 능력, 창의력으로 접근하는 솔루션을 기획하는 훈련입니다. '더 나은 우리 지역 만들기'를 주제로 하이샘과 하이디가 내가 사는 지역을 새롭게 보고,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수록 놀랍고 짜릿했습니다. 이곳에서 자란 우리. 지역이 만들어주는 우리의 공통점. 미래교육을 계기로 하이디와 하이샘은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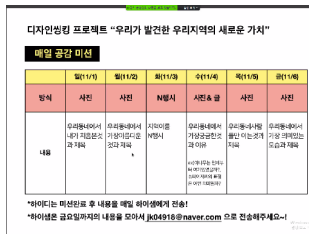
1 정선, 영월, 삼척, 태백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모아 기록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2 마인드맵을 통한 지역 공감, 관찰 미션 등을 통해 디자인씽킹 5단계 프로세스를 경험했습니다



3 서로 발표하고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 미션을 공유하며 일상 속에서도 꾸준히 해보기로 약속했습니다

[미래학교 진행 일정]

디자인씽킹 워크숍
사전교육
2020년 10월 30일(금)

디자인씽킹 워크숍
(정선, 삼척 세션)
2020년 10월 31일(토)
11월 7일(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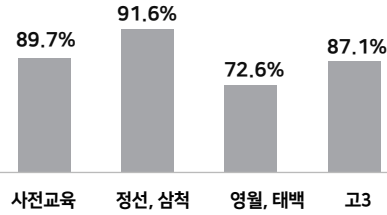
디자인씽킹 워크숍
(영월, 태백 세션)
2020년 11월 15일(일)
11월 22일(일)

디자인씽킹 워크숍
(고3 세션)
2020년 12월 26일(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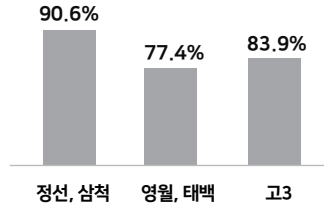


미래학교 참여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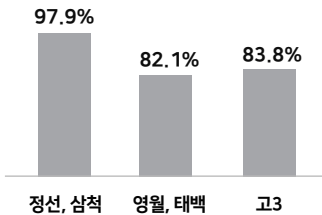
프로그램 구성 및 진행 방식이 만족스러웠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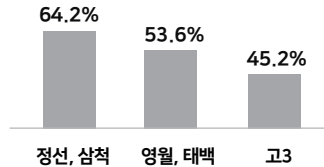
디자인씹킹 워크숍을 통해 공감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디자인씹킹 워크숍을 통해 우리 지역을 새롭게 생각해볼 수 있었다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멘토링시간에 '지역사회 바꾸기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고 싶다



지역사회를 낯설게 보고, 관찰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방법을 고민하는 시간이었어요.

혼자라면 접근하지 못했을 아이디어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지역을 생각하는 마음, 공감을 느꼈습니다.

무작정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잘 가르쳐 주셔서 아이디어를 내는 것에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대표님과 퍼실리테이션 선생님들이 잘 이끌어 주셔서 어렵지 않았어요. 3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의 장점과 단점을 확인할 기회였어요.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공유하며, 새로운 의견과 방안을 융합하고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대규모 온라인 진로 박람회

#꿈키움 페스티벌

“우울 밖의 하이디를 응원해!” 강원도 폐광지역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했던 대규모 온라인 진로 박람회 <꿈키움 페스티벌>! 유튜브와 ZOOM으로 진행됐지만, 모두가 직접 만난 것만큼 뜨거운 열기와 즐거움으로 가득했던 페스티벌이었습니다. 문과, 이과, 예체능 등 수십 개의 학과로 구성된 학과 부스는 해당 학과에 소속된 지역 선배들이 직접 준비하고 운영했는데요.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학과에 대해 직접 물어보고 진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어 모두가 200% 만족했다고 합니다. 하이쌤과 하이디 서로에 대한 애정이 잔뜩 묻어났던 라디오 부스와 이벤트 부스까지! 청소년이 꿈을 탐색하고 키워나가는 과정이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축제의 현장을 순간포착해보았습니다.



“목표로 설정한 것을 차츰차츰 이루다 보면 제가 도달해 있는 곳이 꿈이라 생각해요. 작은 목표와 과제를 도전하고 달성하면, 이상적으로 그려온 꿈 꾸던 모습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억지로 노력해서 찾는 꿈은 진짜 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경험해 봐야 내 꿈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학생이라면 공부도 본분이니 본분을 지키면서 시야를 넓혀 취미활동이나 다른 경험을 해본다면 적성에 맞는 꿈이 언젠가 내 손안에 있을 거예요. 저처럼 황당한 방법으로 찾아오기도 하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 조급해 하지 마세요.”

-고동래퍼 이영지



- 1 어서 오세요! 꿈키움 페스티벌 시작합니다
- 2 우울 밖으로 JUMPI 고동래퍼 이영지의 공연 및 토크쇼로 행사의 시작을 알렸어요
- 3 전공 시간에 뭐 배우는지 궁금해? 해당 학과에 다니는 지역 선배의 꿀팁을 들어봤어요
- 4 5 사회과학, 인문과학, 교대/사범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음악/미술/체육 전공에 이색 학과까지!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물어보고 탐색할 수 있었어요

대학생 서포터즈의 한마디

김동현 하이셈



저와 비슷한 과에서 공부하는 다른 강원도 학생들을 만나 이런 저런 얘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기회입니다. 또 강원도 후배들을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경험해본 일을 얘기할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다만 오프라인에서 진행됐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워요. 계속 이런 활동이 유지되면 좋겠어요!

신진명 하이셈



아이들에게 학과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원도 아이들의 처지를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었던 기회였어요. 제 발표가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도움 됐기를 바랍니다. 며칠간 열심히 준비한 만큼 무사히 마쳐서 정말 다행이고, 아이들에게 멘토링 또한 적극적으로 해서 꿈키움 페스티벌의 슬로건처럼 우물 밖에 나올 수 있도록 도움 주는 하이셈이 될게요!

2020년 11월 28일(토), 꿈키움 페스티벌에 참여한
235명에게 소감을 물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많이 알고, 잘 모르던 부분을 보충하는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다시 참여하고 싶은 만큼 뜻깊은 체험입니다!

지금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들을 통해 학과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의미 있었어요.

꿈키움 페스티벌을 통해 해야 할 일이 뭔지 알았고, 내가 궁금했던 것에 관해 많은 정보를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제가 꿈에 대해 배우고 소통하는 거라서 참여하고 싶도록 프로그램을 잘 짜주신 것 같고, 다양한 이벤트도 있어 정말 축제처럼 느껴져서 재미있었어요!

하이샘의 든든한 지원군

#사회인 멘토링

하이디에게 늘 든든한 멘토가 되어준 하이샘! "하이샘도 멘토가 필요해요!" 하이샘의 진로 및 미래 설계, 커리어 개발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 사회인 멘토님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멘토님들의 실질적인 정보와 아낌없는 조언을 통해 하이샘들은 새로운 꿈이 생기기도,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기도 했어요! 일상에서는 쉽게 마주할 수 없는 멘토님의 삶, 커리어, 가치관 등을 알 수 있고 같은 고민을 가진 하이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사회인 멘토링을 사진과 후기를 통해 만나 볼까요?



코로나 시대에 마음 돌보기
'나'를 잃지 않기 위해 다시 글을 쓴다

코로나 시대에 마음 돌보기: '나'를 잃지 않기 위해 다시 글을 쓴다
3/25(목) 19시 with 송주연 멘토님

신원준 하이샘

갑작스레 밀려온 우울을 극복하고자 듣게 된 멘토링인데 이 우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나 자신이 우울뿐만 아니라 다른 감정도 충분히 느끼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는 것을 새로이 알게 되었습니다.

김사과 하이샘

멘토님께서 '자기 친절', 나 자신을 친한 친구 대하듯 보듬어주고 괜찮다고 말해 주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정말 많이 힐링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정민 하이샘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상황과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대학교 2학년이라는 상황이 겹쳐져서 '나'를 잃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침 좋은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기에 신청했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한 고민을 날릴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소중한 멘토링을 진행해 주신 멘토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김서현 하이샘

요즘 들어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는 나, 그 사람들에게 영향받는 나를 보면서 많은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주관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 보지 않고 남이 보는 나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생각해왔던 저는 이번 멘토링을 들으면서 '자기 자비'와 관련된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저를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행동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멘토링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이샘과 고3 하이디가
함께 듣는 사회인 멘토링

영월 토박이, 10년 경력 카지노딜러에서
문화살롱 레비로드의 대표가 되다

영월 토박이, 10년 경력 카지노딜러에서
문화살롱 레비로드의 대표가 되다

박지원 하이샘

하이원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제게, 강원랜드에서 카지노 딜러로 일 하였던 멘토님을 만나는 것은 큰 의미입니다. 멘토님의 생각을 들으면서 이것이 진정한 멘토링 선순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의미 있는 멘토링이었습니다.

최홍아 하이샘

멘토님께서 강원도에 안주하지 말고 큰 물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경험해보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본인이 우리 지역을 잘 지키고 있을 테니 때가 되면 그대들이 돌아와서 이 자리를 맡아달라고 하셨는데, 이 말을 듣고 나중에 성공해서 사회인 멘토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인 멘토단의 한마디

엄정원 문화살롱 <레비로드> 대표



2월 21일, <영월토박이, 10년 경력 카지노 딜러에서 문화살롱 레비로드의 대표가 되다!> 멘토링을 진행했어요. 청소년 멘토링은 처음이라 어쩔 수 없이 '라떼는 말이야'가 나오더라고요. 20여 년 차이가 나는 학창 시절 인데도 아이러니하게 여전히 학생들이 즐길 거리, 놀거리가 제한적이고 부족하다는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를 걱정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마음을 가진 멘티들을 보면서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세대를 먼저 살아온 인생 선배로서 더 분발하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배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발자국을 남겨줘야겠다는 책임감도 들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마음을 다해 가라." 제가 좋아하는 공자님 말씀입니다. 모든 관계에 진실된 마음과 성실한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은 생각보다 눈치가 빠르거든요. 마음을 다해서 임하는 모든 일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여 후회가 생기더라도 좋은 경험이었다 생각하고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강유현 경기도교육청 도독 초등교사



1월,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멈춘 겨울. 9명의 장학샘과 온라인으로 만났습니다. 더없이 추운 시간이었지만, 온라인으로 따스함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 받은 날이었습니다. 하이샘 모두가 멋지고 치열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가르친다는 일을 앞두고, 그것이 스스로 삶에 그리고 맞이할 학생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이샘의 고민은 과거 제가 깊이 고민했던 지점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멋진 포부도 선생님이 되는 길을 선택했지만, 아이들을 만날수록 어려운 현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이의 삶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때 좋은 선배가 옆에 있었다면, 내게 뭐라고 말해 주면 좋았을까요? 뒤늦게 알게 된 그 위로의 말을 하이샘에게 전하려고 했습니다. 완벽한 선생님이 아닌 나다운 선생님이 되기를 바란다고. 완벽하게 자애롭고 희생하는 선생님이 되기보다 인간적이지만 스스로다운 모습이 되기를 바란다고. 현재의 지혜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의미 있다고. 그 위로의 진심이 하이샘들에게 가서 닿았는지, 좋은 후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일을 하며 겪었던 성장통이 누군가에게 약간이나마 도움 된다는 사실에 마음이 벅차오르는 만남이었습니다.

박준규 해럴드경제신문 기획취재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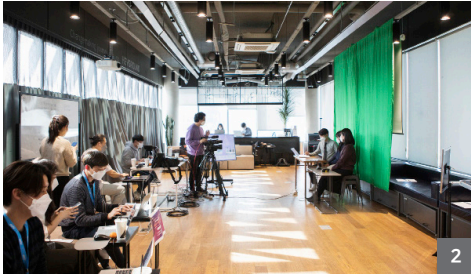


지난 2월 9일, <나의 일상을 스토리텔링하다, 현직 기자가 알려주는 글쓰기 노하우>라는 제목으로 멘토링을 열고 8명의 멘티를 만났습니다. 특히 그날 하이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중에 "글쓰기의 틀을 깨고 싶다."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진지하게 자신의 글쓰기를 진단하고 고민하는 모습은 제게도 큰 자극이 됐습니다. 각자 처한 환경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내 생각을 녹여낸 근사한 글 한 편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작은 감동마저 느꼈습니다. 저는 매일 마주하는 일상에서 글감을 많이 찾고, 특별하지 않아 보이는 생각의 조각을 잘 정리해두라고 조언했습니다. 나만의 스토리텔링을 잘 하려면 결국 일상적인 것에 감각을 곤두세우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번 멘토링을 통해 멘티들이 작은 영감을 얻었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주어진 일상에서 즐거움을 찾아보고, 또 글이든 영상이든 다양한 방식으로 누군가와 소통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면 지금의 시간 속에서 분명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잠시만 안녕! 하이샘의 작별 인사

#수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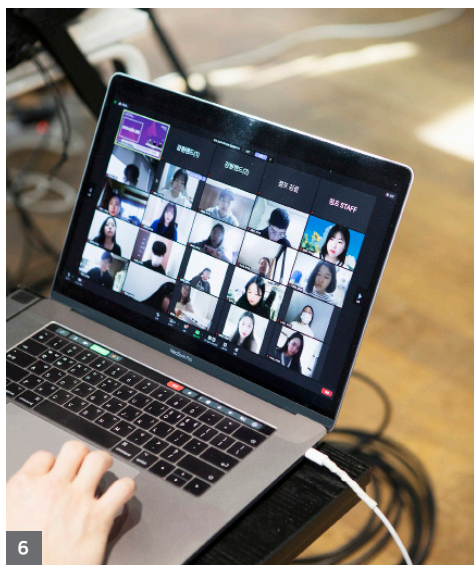
2020 하이원 멘토링 장학 활동에 참여한 하이샘과 하이드리 모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달려 마침표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2월 26일, 온라인으로 2020 하이원 멘토링 장학 수료식 및 디자인씽킹 결과발표회가 진행됐어요. 지난 6개월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 1 2 3 4 수료식 생중계를 준비하는 현장. 떨리는 분위기가 느껴지나요?
- 5 강원도에서 접속한 하이생들과 끊임 없이 소통했습니다
- 6 수료식에 앞서 진행된 디자인생킹 결과발표회 모습
- 8 9 두 명의 하이생이 대표로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애쓰 하이생&하이디에게 수고했다는 인사를 전해요!



5



6



7



8



9

2020 하이원 멘토링 장학 활동 우수자 국내 탐방

제주를 여행하는 새로운 제주

2020 하이원 멘토링 장학 활동의 우수자와 3월 10일(수)부터 13일(토)까지
3박 4일 제주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따뜻하고 알찼던 3박 4일의 일정,
생생한 사진과 후기로 살펴볼까요?

21.03.10 첫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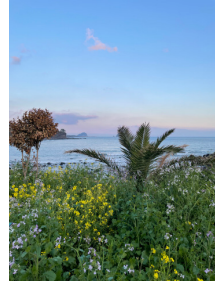
두근두근 여러분과 처음 만났던 날. 금강산도 식후경! 정운상 셰프가 대접해 주신 고급 요리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주 여러 기업과 로컬 크리에이터를 만났습니다. 제주다움을 깊이 느낀 평대리 마을 여행도 기억하나요? 숙소에 돌아와 카카오페밀리 김정아 대표님의 멘토링을 듣고,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기소개, 그림일기, 3박 4일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 줄 마니또 뽑기까지! 제주도에서의 첫날이 알차게 여물었습니다.



21.03.11 둘째날

일찍 일어난 새가 일출 사진을 찍는다! 성주산 오름에 오르는 길은 다소 힘들었지만, 정상에서 본 제주 풍경은 아름다웠어요. 머체왓숲길에서는 셀프 유배의 시간을 가졌어요. 울창한 숲에서 버스킹 공연, 지원샘의 서프라이즈 공연(feat. 정선아 리량)도 들을 수 있었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니 저절로 힐링 된 시간이에요. 그날 저녁 여러분의 즐거운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 없네요.





21.03.12 셋째날

밤부터 내리던 비로 걱정했던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날씨가 좋았던 날. 청년을 든든히 지원해주는 더큰내일센터에 방문했어요. 우리도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 제주의 아름다운 바다를 마음껏 눈에 담았던 제주올레 트래킹, 그리고 제주 올레길을 만든 서명숙 이사장님의 멘토링까지! 멘토님 말씀대로 제주 올레길은 바쁜 일상에 지친 우리 마음을 치유해준 행복한 종합병원이었죠. 피자와 수제버거를 먹으며 드디어 마니또 공개! 3일 동안 마니또를 위해 열심히 미션을 수행해줘서 고마워요.



21.03.13 넷째날

벌써 마지막 날이라니. 일제강점기 격납고로 쓰인 알뜨르비행장에서 제주의 아픈 역사를 들었어요. 첼로 연주와 버스킹까지 함께 들으며 더욱 몰입할 수 있었죠. 이번 여행의 소감을 서로 나누는 후, 캐리어도서관을 위해 챙겨온 책을 모두 기부했어요! 우리가 기부한 책이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할까요? 마지막

으로, 작지만 마음이 듬뿍 담긴 사무국 손 편지를 전했습니다. '제주를 여행하는 새로운 재주'라는 주제로 기획된 이번 여행! 우리는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국내 탐방의 추억과 함께 2021년을 힘차게 지내볼까요?



하이원 멘토링 장학 활동을 통해 무엇이 달라졌나요?

하이원 멘토링 장학 활동을 통해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이원 멘토링 장학 활동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15인의 활동 우수자가 질문에 답했습니다.

하이원 멘토링 장학 활동 덕분에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했다.

김민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스스로 많이 돌아보게 됐고, 아이들의 순수함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를 계속해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6개월 동안 고군분투한 내 모습, 잘 따라와 준 하이디를 칭찬하고 싶다.

하이원 멘토링 장학 활동 덕분에
확신을 가졌다.

김소이

다양한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매주 꾸준히 하이디들을 만나며 내 꿈을 꼭 이루겠다는 의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하이원 멘토링 장학 활동 덕분에
나에 대해 더욱 알아갈 수 있었다.

이현지

장학금을 학업 분야에 사용하고, 사회인 멘토링에 참여하며 내가 원하는 분야가 어디인지 고민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며 멘토링 활동을 즐기는 나를 발견하고, 나도 모르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

**하이원 멘토링 장학 활동 덕분에
도전을 즐기게 되었다.**

전예원

장학생 선발 이후 미래를 그리며 많은 도전을 했다. 하이원 멘토링 장학이라는 든든한 지원이 있었기에 도전할 수 있었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고, 즐길 수 있었다!

**하이원 멘토링 장학 활동 덕분에
2020년을 울고, 웃으며 보냈다!**

박진성

처음 경험하는 온라인 멘토링이 어렵고 서툰 점이 많아서 초반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갈수록 하이드들과 친해지고, 어려운 점은 사무국의 즉각적인 피드백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다. 멘토링 준비, 활동, 보고서 작성 등 해야 할 일이 많아서 힘들었지만, 아이들과 함께라서 더욱 특별하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이렇게 좋은 경험이 지역사회 후배들에게 더 많이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갖게 됐다.

**하이원 멘토링 장학 활동 덕분에
교사로서의 역량을 길렀다.**

권미소

6개월 동안 아이들과 줌으로 만나 수업하고 라포를 쌓아가는 과정을 통해 미래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역량을 쌓았다는 점이 뜻깊다.

**하이원 멘토링 장학 활동 덕분에
풍족했다.**

박지원

내가 나고 자란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음에, 고등학교 후배들과 교류할 할 수 있음에, 어느 프로그램에도 뒤지지 않는 대외활동을 할 수 있었음에.

하이원 멘토링 장학 활동 덕분에
미래의 나를 그렸다.

엄영서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통해 발전하는
나, 단단한 나를 만날 수 있었다.

하이원 멘토링 장학 활동 덕분에
신뢰의 정의를 알게 됐다.

김채현

하이디와 함께 멘토링을 만들어가면서, 서로 의
지했고 신뢰했다. 마지막까지 서로 믿었기에 나
와 하이디는 서로 다른 '나'에서 '우리'가 될 수 있
었다. 멘토링이 끝난 뒤에도 우리는 서로에게
건강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하이원 멘토링 장학 활동 덕분에
인생은 도전하는 사람들의 것임을 배웠다.

김효린

현실에 안주하며 변화를 싫어하고 도전을 두려워하는 사람.
부끄럽지만 하이원 장학을 만나기 전 나의 모습이다. 간혹 새
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다가도 주위에서 들려오는 걱정 어린
말에 쉽게 포기했던 과거와 달리, 앞으로 난 도전을 즐기며
느리더라도 나의 속도에 맞춰 인생을 개척해나가기라 다짐
한다. 결국 도전하는 사람은 무엇이든 얻게 되는 법.

하이원 멘토링 장학 활동과
동반 성장했다.

신원준

하이원은 내 성장을 지지해 주었고,
나의 성장은 하이원 멘토링 장학의
바람직한 첫 발자국이 되었다.

**하이원 멘토링 장학 활동과 함께
엠티 다녀왔다!**

심예지

여러 하이쌤과 하이디들을 만나 소통하고 교류하며 좋은 인연을 만들었고, 또 꿈키움 페스티벌과 디자인씽킹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대학교 엠티 부럽지 않은 즐겁고 알찬 시간을 보냈다.

**하이원 멘토링 장학 활동 덕분에
청춘을 즐겼다.**

신진영

전에 하던 힘든 알바도 하이원 장학 덕에 줄었고, 하이디들과 즐거운 추억도 쌓았고, 제주도에서도 좋은 사람들 만나 즐기는 시간을 보냈다!

**하이원 멘토링 장학 활동 덕분에
다시 열심히 살 에너지가 생겼다.**

최송아

대학 입시를 마치고 방황하던 도중 만난 하이원 멘토링. 덕분에 하이디 친구들을 만나 다시금 동기 부여받고, 나태해진 정신과 몸을 다잡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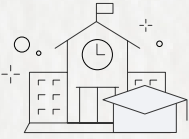
**하이원 멘토링 장학 활동 덕분에
잊지 못할 추억을 엄청 많이 만들었다.**

장소민

누군가를 가르치며 하이쌤이라는 역할에 자부심을 느끼는 추억을 만들 수 있었고, 활동우수자로 선정되어 동기 하이쌤들과 제주도에서 즐거운 추억들을 만들었다. 꿈키움 페스티벌에서 내 멘티뿐만 아니라 많은 청소년에게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다. 소중한 추억이자 절대 잊지 못할 추억이다.

ENDING LETTER

(주)강원랜드와 JUMP 사무국이 인사를 전합니다.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을 통해 온기 가득한 시간을 함께해준 모두에게 고맙습니다.



(주)강원랜드 사회가치실현실 사회공헌팀 박지현 차장

(주)강원랜드는 지난 20년간 폐광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장학 사회공헌사업에 집중 투자해 왔습니다.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 또한 교육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과거 단순 장학금 지원에서 현재 장학생의 학습성장 멘토링까지 책임지는 당사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로서 이 사업을 통해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 벅차 오릅니다.

2020년 장학생 활동이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중 첫번째로는 온라인 장학캠프를 꿈꿀 수 있겠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온라인 캠프라 걱정이 많았었는데, 캠프에 참여했던 하이생들은 저의 걱정이 무색할 만큼 몰입해주었습니다.

두번째는 꿈키움 페스티벌에서 자신의 경험담과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아낌 없는 나눠주고자 했던 하이생 서포터즈들의 열정과 활약상이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하이드가 되어 페스티벌에 참여했다더라면 하이생 서포터즈들의 이야기속에서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거나 더 멋진 꿈을 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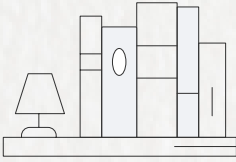
세번째는 디자인씽킹 결과 발표회에서 박ㅇ쁨 하이드의 발표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기억됩니다. 하이생들이 먼저 발표를 해서 긴장했을 법도 한데, 너무 밝고 선명한 목소리로 멋진 발표를 해주었습니다. 정말 귀여웠어요~

마지막으로는 제 마음을 설레게 했던 하이드&하이생들이 남겨준 기록들이에요~ 자기성장기록 또는 멘토링 활동 기록을 통해 하이생들이 하이드를 위하는 마음과 노력, 그런 하이생들의 노력을 결과물로 보여주는 하이드들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인상 깊은 메시지로는 '멘토링 활동을 통해 자신감과 에너지가 상승하게 되는 멋진 일들이 일어났다', '학교에 제출하는 포트폴리오에 자랑스럽게 하이원 장학생 활동 내용과 경험을 적었다', '21살에 받은 최고의 선물이다.' 입니다.

정말 순간순간 참 좋은 기억들이 많은데 모두 언급할 수 없어 아쉽습니다.

여러분! 하이드, 그리고 하이생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 항상 강원랜드가 든든한 지원군이런 것을 잊지 마시고, 폐광지역과 함께하는 강원랜드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멘토링 활동에 진심을 다해준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고, 또 감사합니다. 하이드가 하이생이 되고, 하이생이 사회인 멘토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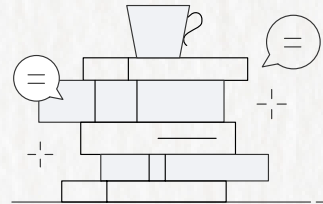


JUMP 사무국 지명

하이원 멘토링 장학을 통해 우리 삶에 있어 멘토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인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인생을 살면서 멘토를 만나는 경험, 누군가의 멘토가 되는 경험은 특별하다는 것도요.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수료식인 것 같아요. 화면 속 여러분의 표정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거든요. 하이드리를 아끼고 애정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멘토링 활동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마친 여러분을 정말 존경합니다. 6개월의 여정을 무사히 마친 하이드리, 하이샘을 언제나 응원하며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릴게요.

JUMP 사무국 종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어요. 하이드리와 하이샘 모두에게 서로의 '편'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꿈키움 페스티벌'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진로박람회라 제한된 사항이 많았는데 열심히 참여해준 하이샘과 하이드리 덕분에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어요. 즐길 거리, 진로에 대한 조언 그리고 명사특강까지 삼박자가 잘 조합된 행사였어요. 지금까지의 6개월이 각자 다른 의미로 다가오겠지만 추후에 다시 이 시기를 돌아봤을 때 웃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JUMP 사무국 말현

나눔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미 가진 것이 많은 하이샘들이 스스로의 장점과 재능을 알고, 그것을 나누었을 때 느끼는 기쁨, 보람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매주 활동보고서를 읽으며, 하이샘과 하이드리의 이야기를 간접 체험하던 날이 기억에 남습니다. 직접 만나진 못했지만, 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노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멋진 하이샘과 하이드리 여러분!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뭐든지 잘 해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2020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 임팩트 보고서 하이원과 함께 꿈씨앗을 심었습니다

발행	2021년 3월
총괄기획	(주)강원랜드 사회공헌팀
컨텐츠 제작	사단법인 점프(통합 운영국)
디자인	올댓캠퍼스
인쇄	신세계기획
저작권자	@강원랜드

2020 하이원 멘토링 장학사업 임팩트 보고서



하이원과 함께
꿈 씨앗을
심었습니다